금주의 법구-〈선림보훈〉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그만둬야 한다.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은 바꿔선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일)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스님은 대탕평을 비롯해 선거제 개선, 전통문화 인식 개선 등의 종책 계획들을 내놨다.
사진=박재완 기자

설정 스님 "공의 모아 대탕평 시대를"

1월 11일 신년기자회견… 봉축 前 대사면 예고

불행한 종단 역사 정리
조계종 공동체 화합 위해
"부처님 당시 정신 새기자"

개인 의혹 · 선학원 관계에
'반드시 해결' 적극 의사
민영소년원 건립 추진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무술년 한 해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존경받는 한국불교'라는 종무기조 아래 대탕평 조치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체 화합을 도모한다. 대탕평 조치에는 멸빈자 사면과 해종언론 논란 등 각종 교계현안이 담겨 눈길을 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종무기조와 종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35대 집행부는 올해 △수행하는 한국불교 △승려복지 확대 △교구 · 종단 발전 △미래 대비하는 종무행정 △전법공동체 실현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한국불교 전통문화 홍보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책임있는 국가정책 도모 등을 중점 종책과제로 제시했다.

공의 통한 화합, 최우선 순위

기자회견서 설정 스님은 종단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사부대중 공의'에 무게를 두고, 대화합과 수행공동체 정신 회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우리 종단에는 시대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단의 제재로 대중과 멀어진 출가수행자들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계종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회향하길 희망한다"면서 "불행했던 과거의 아픈 종단 역사를 정리하고 조계종 공동체의 화합과 불교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화합, 대탕평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설정 스님은 이를 위해 종도들의 공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사부대중이 모여 조계종 공동체 대화합을 선언하는 법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설정 스님은 "대탕평 시행에는 사부대중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종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들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 수행심 회복과 종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정 스님이 발표한 대탕평 조치에는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과 해종언론 문제 등이 포함돼 주목된다. 질의응답서 스님은 "실수에 의해 영원히 내쳐지는 것은 부처님 뜻에 맞지 않다. 의현 스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복권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종도들의 이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살아가는 소통의 통로가 대화인데 끊어진 부분이 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율장 근거한 선거제도 마련

지난해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종단 내 선거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는 설정 스님은 이날도 선거제도 폐해를 지적하고, 율장에 근거한 선거제 마련을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시비 분별을 논하게 되고, 무분별한 중상과 모략을 넘어 금권이 동원되는 참담한 상황이 바로 조계종 선거제도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불교에 희망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기 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의 선거제도 개선 복안은 직선제 수용이 아닌 추대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스님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선거로 인한 문제는 발생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꽃인 직선제는 종교적인 입장서 볼 때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계종이 지배구조가 돼선 안 된다. 개선 노력에는 총무원장뿐만 아니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내 모든 선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불교 전통문화 홀대 정책 개선

아울러 설정 스님은 전통문화인 불교문화에 대한 공공기관의 그릇된 인식과 민간문화재 홀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세종시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정서 빚어진 차질과 평창올림픽 강원도 문화사업에서 월정사가 배제되는 일 등에 대한 정부 인식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스님은 "편협한 역사관과 문화관을 지닌 일부에 의해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가치보다는 종교적 잣대 또는 종교적 형평성을 이유로 민족문화를 홀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관행과 시각을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국가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질문 받은 설정 스님 '눈길'

한편 설정 스님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질문에 직접 답했다. 먼저 선거과정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당장 세세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미진한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 서로 이해관계나 독선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영소년원 유치에 나서 불교계 최초의 교정시설을 세우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설정 스님은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을 생명 · 자연을 중시하는 불교적 정신으로 교화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임기 내에 해내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불교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A2〉

"처처 갈등 · 분쟁 소멸시키고 지구촌 평화 위해 정진하자"

진제 스님, 조계종 신년하례서… 참선수행 강조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불기2562년 무술년을 맞아 종도들에게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본래면목(本來面目)' 화두를 제시하며 참나를 돌아보는 참선수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진제 스님은 1월 8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서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1700년 동안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뤄왔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선도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은 2700년 전이나 작금(昨今)이 다르지 않으니 부처님 자비로 21세기 최후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사해오호(四海五湖)의 처처(處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이 소멸하여 모든 인류가 화합하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법어를 했다. 스님은 또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신년하례식은 진제 스님 헌향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헌다, 통알, 종정 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각 교구본사, 신행 · 전법단체 대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통일대불에 9배를 올리고, 서로 예배를 했다.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가 전계대화상으로 추천한 성우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설정 스님은 "종정 스님과 원로대덕이 법체정정해 종단을 외호해 주시고, 사부대중은 있는 자리서 부단히 정진해 무상정각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런 공덕으로 나라가 환희청정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며 부처님의 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1월 8일 대구 동화사서 열린 조계종 신년하례법회서 참여 대중이 새해 통알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사고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지역포교 사업에 동참하실 역량있는 지사 · 지국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 충청도 · 경남 북부 · 제주도
■사업 내용 | 지역 내 신문홍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제출 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지역 사암연합회 등의 단체장 또는 종단 임원)
주민등록 등본 1통
■제출 방법 | e-mail, 우편
■모집 기한 | 1월 31일까지

(우)03131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전 화 | 대표 02)2004-8200 직통 02)2004-8204
e-mail | cgseo@hyunbul.com



장엄불사 전문기업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은 연등 자동승강장치, 장엄등설치, 인등, 위패, 원불전등 사찰장엄불사 전문기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시공,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찰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공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천불전



연등설치공사(고정식)



인등




위패




성취등 / 불사용품

www.boryeon.com
BORYEON 보련기획 | 010-5381-9355 / 031)526-2201~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전시판매장 : 정진(조계사 맞은 편) 02)722-5900 / 010-4117-3893

제도 개혁 '험로'… 대사회 역량 '순항'

[분석] 키워드로 읽는 조계종 종책과제

신성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서 다양한 종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종책과제들을 △대탕평 조치 △선거제 개선 △문화유산 인식 개선 △대사회 역량 강화 등 총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분석했다.

대탕평 조치 01

설정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비롯한 대탕평 정책에 대해 과거 여느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냈다.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대중 공의를 모아 대화합을 선언하는 법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과 관련된 대표적 사건인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 파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멸빈자 사면은 종헌 개정이 필요한 중대사인데다 중앙종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이 지난해 신년교시를 통해 멸빈자 사면을 우회적으로 제안하고,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사면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중앙종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처님오신날 전 대사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선 오는 3월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사면에 대한 대중공의를 모으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헌개정안은 또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종헌개정안은 부칙 삽입으로 1회에 한해 사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종헌 위상 저해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A중앙종회의원은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대사면에 동의하더라도 종헌종법에 따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과 종헌개정안의 수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선거제 개선 02

선거제도 개선은 10여 년 전부터 공론화된 조계종 숙원사업 중 하나다. 13대 중앙종회부터 꾸준히 안건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될 만큼 중앙종회 내에서도, 종단 내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16대 중앙종회서는 직선제와 종정이 추첨하는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현재 '원점 재검토' 중이다. 다만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모든 선거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봉축행사 전 대탕평
-3월 임시종회 결과에 달려

율장 근거한 선거제도
-임기만료 앞둔 중앙종회 '변수'

문화재 지원 형평성
-취지 논리적… 가능성 '미지수'

민영소년원 운영 추진
-법무부와 교감 '긍정적 기류'

B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스님 발표 내용 중 '종도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회를 비롯해 모두가 선거로 인한 폐해를 공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교적이고 바람직한 선출제도를 고민하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종회도 더 활발하게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6대 중앙종회 임기가 올해 10월 만료돼 안건 처리에 대한 체감온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은 입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이 경우 17대 중앙종회가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문화유산 인식 개선 03

설정 스님의 신년기자회견 세 번째 키워드는 '전통문화 인식 개선'이다. 설정 스님은 전통문화를 종교적 잣대로 판단하는 관행과 국유 문화재로 예산이 집중되는 현 문화재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설정 스님이 후보 당시 제시한 10대 기조 공약 중 하나이며, 앞선 자승 스님 집행부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제안한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전체 문화재의 3.6%인 궁궐, 왕릉 등 국유문화재에는 1066억여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23.5%를 차지는 조계종 소유 성보 문화재에 대해서는 486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를 1건당 예산액으로 환산하면 국유는 9억 3500만원에 달하지만 조계종 소유는 6600만원에 그친다. 국유 문화재는 비율은 낮으나 민간단체 소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받는 상황이다. "궁궐과 왕릉은 면단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밖의 문화재는 점단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이 제시한 정책 카드는 '민간문화재를 전담 · 지원하는 국가 조직 신설'이다. 조계종이 제언한 제19대 대선 정책제안집에 따르면 이는 현 문화재청에 불교문화재 전담 부서와 민관협력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유에 집중된 문화재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았다. 국유를 제외한 불교문화재를 전담하며 지원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사회 역량 강화 04

설정 스님이 종단 대사회 역량 강화로 꺼내든 대표적 카드는 '민영소년원 운영'이다. 법무부 또한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교계 등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면서 "조계종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불교계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조계종과 법무부 측은 최근 민영소년원 설치에 대한 교감을 나눈 바 있다.

불교계가 민영소년원을 운영을 확정지으면 이는 국내 최초 민영소년원이자 불교계 유일의 교정시설이 된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설정 스님은 평소 청소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와중 우연한 계기로 법무부와 뜻이 맞아 떨어졌다. 좋은 취지로 민영소년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대표단 교차방문, 문화유산 공동보존관리 협의 등을 종책과제로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만 조계종 대북종책을 담당하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분위기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설 전망이다.

하승창 청불회장 1월 30일 취임법회

조계사서 각 종단 대표 참석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신임 청와대불자회장으로 취임한다.

청와대불자회는 "직지사 조실 녹원스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연기된 신임회장 취임법회를 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자, 불교계 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하승창 수석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하 수석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조계종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총무원장 선출 개선, 6월 종회 '분수령'

조계종 중앙종회 특위, 선거제 재검토 시작
내달 공청회 의견수렴… 타국가 제도 검토도

조계종 숙원사업인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이 오는 6월 중앙종회 임시회를 겨냥해 추진된다.

제16대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세미나 ·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안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서는 1994년 종단 개혁 이전과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13대 중앙종회부터 이어져온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특위는 오래 전부터 진행된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가 현재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공감, 불교적이고 종교적인 선출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이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선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의하고, 6월 원포인트 종회를 예상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타종단 및 남방불교국가의 지도자 선출방법과 율장에 근거한 지도자 추대 방법 등을 정리해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위원을 위촉해 오는 2월 공식적인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밖에 회의서는 선출제도보다 선거법 강화와 준용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평 스님은 "현행제도가 나쁘다고만 볼 순 없다. 문제는 현행제도를 제대로 준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감 스님도 "선거제도가 불교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런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차선책을 택한 것이라고 본다"며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추가 원외위원으로 진화(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 덕문(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현진(교육아사리) · 목종(부산 대광명사 주지) · 법선(광주 문빈정사 주지) 스님을 위촉했다.

윤호섭 기자

"비구니회 잘 돼야 한국불교 근사해져"

설정 스님, 전국비구니회 예방서… 소통 · 화합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임원진에게 소통을 중심으로 한 비구니 화합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과 부회장 일진 스님 등 임원진을 만나 "비구니회가 잘 돼야 한국불교가 근사해진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느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니 서로 대화하며 모든 일을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 이에 육문 스님은 "열심히 하겠다. 총무원장스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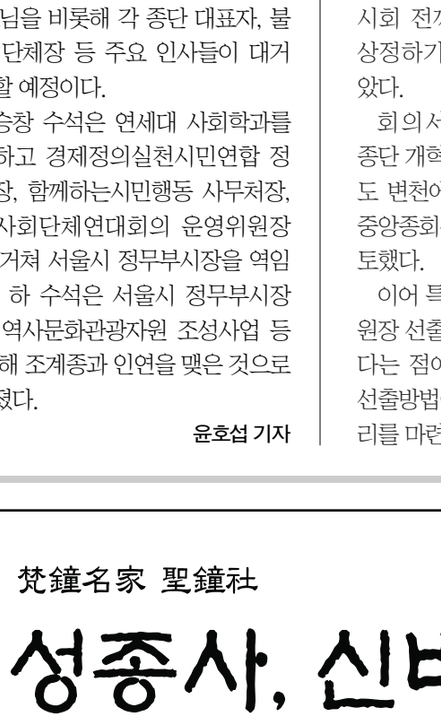
설정 스님의 이 같은 당부는 2014년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추천과정서 시작된 내홍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해 10월 100여 명의 비구니스님들은 '열린비구니모임'을 구성하고, 전국비구니회 종회의원 선출에 관한 회칙이 종헌종법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은 점차 확산돼 2015년 3월 600여 명의 비구니스님이 모여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차기회장 선출 총회서 육문 스님이 회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내홍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전국비구니회가 2016년 비구니 의원 제명을 결의하면서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설정 스님은 "복지분야부터 사찰음식까지 현대사회 비구니 역할이 크다. 비구니회가 내규를 잘 만들어 앞으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梵鐘名家 聖鐘社

성종사, 신비의 에밀레종 소리 / 문양 완벽 재현



2017년 제작된 신라대종(5300관)

보라! 완벽하게 재현된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비천상

마모된 비천상 얼굴부터 향로, 천의까지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복원

성종사가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신비의 에밀레종을 외관은 물론 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였습니다.

감리를 맡은 강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재현종의 600hz 이내의 주파수 성분이 에밀레종과 96~99% 동일하여, 실제 에밀레종과 거의 흡사하며, 여음의 경우 오히려 재현된 종이 25%정도 향상되어 더 오래 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sungjongsa@hotmail.com



함박눈 '펑펑' "스님 썰매 출동"

세상의 얼룩을 뒤덮는 함박눈에 천진불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 미소가 아름다워 스님이 썰매를 꺼내들었다. 스님 썰매를 타기 위해 줄지어선 천진불들에겐 동장군도 놀잇감이다.

함박눈이 내린 1월 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금선사 연꽃어린이집 원생들이 스님이 끌어주는 눈썰매를 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함양군

제주 4.3 희생자 달랠 영산재 열린다

조계종, 4.3 70주기 광화문 행사서 봉행 추진

유족회, 설정 스님 예방서 특별법 제정 등 도움 요청

조계종 측 흔쾌히 수락해

4.3사건 추모 주간 맞아서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도

신성민 · 박진형 기자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제주 4.3사건을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불교계가 나선다. 특히 조계종은 제주와 광화문서 예정된 제주 4.3사건 추모행사에서 영산재를 봉행하며, 추념일 즈음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들도 게재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들은 제주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1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면서 가시화 됐다.

절박한 유족회, 불교에 도움 요청

유족회와 범국민위는 이날 예방 자리서 설정 스님에게 오는 4월 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추모행사 본식에 참여줄 것을 비롯해 불교 차원의 추모 · 위령행사, 특별법 제정에 도움 등을 요청했다.

이날 양윤경 유족회장은 "70년이 지났고, 더 이상 유족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시기가 지나면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스님께서 제정에 힘써주셨으면 한다. 또한 제주서 열리는 70주년 행사에도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특별법 제정에 함께 노력할 것과 4월 3일 제주 방문을 원칙으로 일정을 조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실무진들의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제주와 함께 광화문서 진행되는 제주 4.3사건 추모행사에서 유족회 등이 요청한 위령 · 천도재를 영산재로 확대해 봉행하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영산재를 통해 4.3 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고혼들을 천도하고 화해 ·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조계종은 제주 4.3사건 추모 기간에 맞춰 전국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을 게재하고, 위령재 봉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1월 11일 열린 설정 스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건으로 배포된 세부 계획에도 제주 4.3사건 70주기 평화기원법회와 진상규명 공동 촉구 등이 계획으로 담겼다.

제주불교계 노력도 이어진다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추모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 당시 16명의 스님이 희생됐으며, 37개소의 사찰 중 본원사(제주 함덕리)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희생된 스님 중에는 제주 관음사 주지였던 오이화 스님도 있었다. 특히 스님들은 유족이 없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인 제주불교계도 제주 4.3사건 70주기 사업들을 전개한다. 제주불교연합회장 관효 스님은 1월 6일 열린 연합회 신년하례법회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으로 학살된 4.3 70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4.3 진상을 바로 밝히고 추모하는 위령재를 봉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 당시 최대, 최종 격전지였던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허운)는 도차원서 진행되는 제주 4.3 둘레길과 더불어 관음사 4.3 둘레길 조성에 나선다. 또한, 새로 시작되는 진상 조사에서 관음사를 비롯한 제주 불교계의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허운 스님은 "특별법 제정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대외적 행보를 함께 하겠다"면서 "최대이자 최종 격전지였던 관음사에 평화공원과 교육장을 설립해 시민들에게 인권 · 평화 인식을 배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 스님 1주기… 사회 · 교계 추모물결

"적폐청산 촛불 함께한 수행자… 극락왕생 하시길"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의 1주기를 맞아 사회 · 교계 추모가 잇달았다. 정원 스님 소신 1주기 추모위원회가 1월 6일 광화문 광장서 추모제를 연 데 이어 7일 서울 금선사서 정원 스님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광화문 광장서 열린 추모제에는 일반 시민들 100여 명이 참여했다. 추모위원회는 정원 스님에 대해 "적폐청산 촛불과 함께한 수행자"라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추모제에선 특별한 불교의식 없이 하유 스님의 법고 공양으로 창혼(唱魂)의식을 대신했다. 법고 공양 이후엔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이도흠 조계종적폐청산2기시민연대공동대표,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상임대표,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최창중 민중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추모위원회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악폐가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다. 적폐 세력은 아직 권력을 누리고 있고 민중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前대통령 구속과 미군 철수,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 등을 주장했다.



추모제서는 하유 스님의 법고 공양으로 창혼(唱魂)의식을 대신했다.

이튿날 정원 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서울 금산사서 봉행된 추모법회에는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前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도철 · 혜문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 스님,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정원 스님을 추모했다. 특히 이날 청화 스님은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이 정권의 부당함에 대한 행위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원 스님은 2017년 1월 7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복궁 앞 공원 열린마당 인근서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했다. 이때 몸 2도, 얼굴 3도 등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1월 9일 6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박진형 기자

선학원 법진 스님 1심서 '징역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 선미모 "즉각 사퇴하라"

법인사무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게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입장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법진 스님은 이사장과 이사, 일체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미모는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 전원 사퇴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등을 촉구했다. 선미모는 "성추행 재판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이사회는 무능력과 부도덕의 극치를 보였다. 법진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상조사위원회를 빙자해 보류하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도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분원장 대중공의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80% 만족… 웹진 변화 '성공적'

조계종 포교원 〈법회와설법〉 만족도 살펴보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설법 현대화 위해 무료제공
시사 자료 · 설법 문안 담아
"불교 각 분야로 확대했으면"

설법 현대화를 위해 조계종이 웹진 형태로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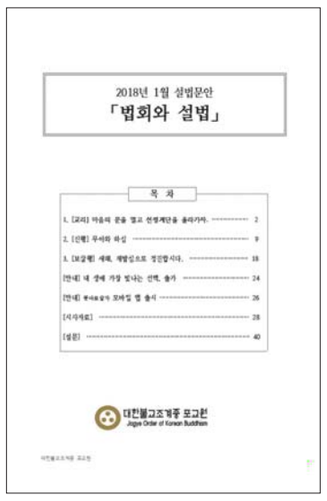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웹진 〈법회와 설법〉에 대한 인터넷 대상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회와설법〉은 법회 현대화를 위해 1995년 월간 〈법회와설법〉으로 발간돼 왔다. 2000년 〈법회와설법〉 출판사업이 조계종 출판사로 이관 후 잠시 발간이 중단됐지만 2015년부터 다시 포교원에서 E북 웹진 형태로 〈법회와설법〉을 제작, 매월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이메일에는 '교리' '신행' '보살행' 3개 분야에 대한 설법예시문안과 시사참고 자료 10여 건이 함께 보내진다.

2018년 현재 약 1000명의 스님들이 이를 구독하고 있으며, 최근 이메일 110여 발송 대상을 정비, 다시 1100명 규모로 발송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이번 설문조사는 30명의 표본이 참여했다. 법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4명(매우 도움 14명, 도움 10명)으로 표본 중 80%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웹진으로 변화 이후 전달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87%인 26명이 개선방식에 만족을 표했다. 특히 교리와 신행자료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3점(각각 4.34, 4.30)을 상회했다.

만족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경전 근거와 시사 자료를 연계한 문안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고민할 수 있었다' '건강, 재물, 명예 등 주제 속에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설법문안이 3개로 일요법회를 할 경우 다소 부족하다'와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산중의 일반사찰 법문 내용으로는 다소 어렵다'는 개선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상봉 조계종 포교원 종책팀장은 "향후 원고 서술형식을 '서술식'에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예로 든 '개조식'으로 변경해 문안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원고 전달방식을 이메일 발송 뿐만 아니라 '포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 설법문안 내용은 알기 쉽고 감동적으로 집필하고 특히, 경전근거와 예화를 풍부히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회와 설법〉을 구독하는 대학생전법단 혜성 스님은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웹진 발행을 불교계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보다 시대에 맞는 설법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웹진 〈법회와 설법〉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에 '법명, 사찰,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신청하면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02)2011-1913

세살 나눔 여든까지! 나눔 새싹 자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어린이집서 나눔교육

500여 천진불들의 고사리 손길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눔저금통을 꽉꽉 채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이 2017년 운영한 어린이 나눔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10곳의 원아들이 총 400여만 원을 나눔저금통에 눌러 담았다. 모금액은 난치병어린이 치료지원 및 소외이웃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나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요즘, 어린이 나눔교육에서 나눔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눔저금통을 통해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옆의 친구와 간식을 나눠 먹고, 장난감을 양보하는 것부터 동전을 모아 아픈 친구를 도와주고, 배고픈 친구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일까지 돕는다.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착한나눔상장'을 수여해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다른 친구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음을 알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스님)이 2017년 운영한 어린이 나눔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10곳의 원아들이 총 400여만 원을 나눔저금통에 눌러 담았다.

박진형 기자

카툰 · 시사토론… BBS TV 신규 프로 '다채'

지찬 스님, 카툰쇼 '어라 통했네' 편성

무술년을 맞아 BBS 불교방송 TV가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어라 스님'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툰 작가 지찬 스님이 BBS TV의 진행자로 나선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되는 '지찬 스님의 어라? 통했네!'는 지찬 스님이 시청자들의 일상 고민들을 카툰을 통해 소통하고 성찰케 하는 일종의 카툰쇼다. 지찬 스님 특유의 잔잔한 카툰은 시청자들에게 따듯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불교적 안목에서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BBS불교방송만의 시사 프로그램, 'BBS화쟁토론'이 새해부터는 TV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 BBS화쟁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화 · 수요일 오전 8시40분과 오후 5시 20분, 약 5분정도 방송되는 '영상으로 만나는 빠알리대장경'은 그동안 책으로만 접했던 빠알리대장경을 카툰 영상으로 재현한 것으로, 불자들이 좀 더 쉽고 생생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에는 '깨달음의 16단계 각산 스님의 안반수의경'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성불수행경전 〈안반수의경〉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에는 체계적 호흡 명상,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명상법이 소개된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다룬 '인생, 만남'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보광사 주지 보명 스님의 강의를 담은 '보명 스님의 서산대사 선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방송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BBS 지찬 스님의 '어라? 통했네!' 자료사진.

불교인재원, 5차 경전과 조사어록 강좌

1월 22일~4월 16일 조계종 전법회관서

불교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는 강좌가 진행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5차 강좌를 1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교인재원은 부처님 가르침과 조사 스님들의 어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아 매년 3개월 간격으로 강좌를 열어왔다.

이번 제5차 강좌에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한국동양철학회장)가 〈화엄경〉을 주제로 청량 스님의 〈화엄경연의수초〉 중 '화엄현담 의리분제' 부분을,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미륵삼부경〉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금강삼매경〉을, 한국명상지도자회 이사인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이 〈돈오입도요문론〉 각각 강의한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혼탁한 세상이다. 중도 정견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보고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 불 밝힌다

포교원 어린이 · 청소년 지원
고시생 위한 마음케어도 눈길

불교 각계가 어린이 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해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 사찰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매년 어린이 청소년 분야와 새터민, 장애인 분야 등 포교 각 분야에 걸쳐 전법중심도량을 선정하고 포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한 취지에서 어린이 청소년 분야 22개 사찰이 집중적으로 우수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사찰은 서울 관음사, 백운암, 봉은사, 불광사, 진관사, 경기 정각사, 흥국사, 금강정사, 인천 수미정사, 인천불교회관, 대전 광제사, 충남 석림사, 광주 선덕사, 전북 참좋은우리절, 울산 해남사, 경북 관운사, 대원사, 영전사, 청량사, 경남 구룡사, 진불선원, 제주 불탑사 등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통계청 조사에서 불자인구 감소 조사 외 다른 조사에서 불자가 적게 줄었다는 결과가 있지만 만족할게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 분야는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회복이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원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우수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된 어린이 처오년 전법사찰 종무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수전법중심도량을 대표해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더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알고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마가 스님이 이끄는 자비명상은 노량진 고시촌의 청년들의 마음케어도 시도한다. 자비명상은 1월 25일 노량진서 공무원 시험 등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한 청년 희망센터 '마음충전소'를 개소한다. 이 날 개소식엔 마가 스님의 마음챙김 법회와 붓다라마, 그레이스 신 등의 나눔콘서트도 진행된다.

마음충전소 소장 소임을 맡게 된 자비명상 등명 스님은 "마음충전소가 혼자 다 짊어지고 애쓰는 버거운 친구에게는 마음충전소 공동체로 마음의 의지처를, 자꾸 떨어져서 좌절한 친구에게는 무상의 지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진로가 맞지 않는데 헤매는 친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공부하기 싫고 게으른 친구에게는 집중력과 정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청년들을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은 동국대 평생교육원 마인드힐링지도사 자격취득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노덕현 · 박진형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사찰에서 불교교리 강좌를 듣는 불자의 모습.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과 인터넷 강좌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신해행증’ 정진으로 새 봄 맞는다

〈信解行證〉

전국 불교대학 3월 개강 앞두고 입학생 모집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수행의 근본 방식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가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전국의 불교대학들이 새 봄을 앞두고 문을 활짝 연다.

막 불교에 입문한 이들에게 처음 접하는 부처님 말씀은 이후 불자로서의 삶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 포교의 첫 걸음이자 신행의 밑바탕이 되는 불교대학의 다양한 강좌를 살펴보자.

2018년 1월 현재 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은 139곳,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개설돼 있다.

조계종의 신도가 되기 위한 관문이기도 한 불교대학은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각 사찰에서 신도기본교육을 마친 불자들이 가야하는 교육기관이다. 기본교육 후 행도 품계를 품수받은 신도를 대상으로 하며 졸업 후에는 조계종 신도 품계 중 세 번째인 ‘부동(不動)’ 품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불교대학은 연간 96시간 이상에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운영 된다. 불교대학의 경우 공통 필수과정으로 〈불교학 개론〉과 〈부처님의 생애〉를 교육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선택과정을 마련해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다.

1~2년제 구분, 불교 각 분야 커리큘럼

먼저 서울 조계사의 경우 2학년 4학기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2년 과정을 통해 심도깊은 교육이 진행된다.

1학년 1학기에는 ‘붓다, 길 위의 삶’과 ‘청정한 삶의 방식’ ‘우리 시대의 종교’ 등 기본적인 불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 이어진다면 2학년 4학기에는 ‘보현행자의 서원’ ‘더불어 함께하는 삶’ 등 실천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반과 토요반도 개설돼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할인 혜택도 있다.

봉은사는 불교 각 분야에 걸친 교육이 장점이다. 먼저 올해부터 한국과 중국 불교사, 불교의례, 불교문화, 불교건축, 불교사회복지, 불교자원봉사, 성지순례 등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며, 중앙승가대학원장 보각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자원봉사 과정도 함께 개설

전주 참좋은우리절의 경우 기초교리와 함께 불교수행과 예절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참좋은우리절의 경우 동문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참좋은우리절의 경우 다문화 가정 봉사 등 자비실천을 강조한다. 불교대학 교육과정 중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강조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자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듣는 불교 강좌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도 불교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바쁜 이들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불교교리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종 디지털대학(www.edubuddhanet)’은 신도전문교육과정과 함께 ‘불교어린이지도사’ ‘불교상담심리사’ ‘전문포교사’ 등 다양한 전문과정을 함께 개설한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속감을 위해 2학기 수강 중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 및 템플스테이에 1회 참여해야 한다.

대학원 심화 과정도 눈길

전국의 불교대학 강의를 수료하면 조계종 인증 교육연수를 받게 된다. 이들 중 희망하는 이는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해 불교대학 졸업자는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포교사 고시 응시자는 700여 명이다. 불교대학 수업 중 포교사 고시를 보는 이들은 스터디와 특별교육 등을 통해 고시를 준비한다. 포교사로 품수된 이후에는 전문포교사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장에서 전법 포교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불교공부를 더욱 심도깊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대학원 진학도 고민할 만 하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불교대학은 종단의 신도전문교육을 넘어 불교의 신행을 실천까지 이어지게 하는 탁마의 장소”라며 “많은 불자들이 불교대학에서 신심을 높이고, 자비실천에 함께 나서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봉은불교대학	02-3218-4821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서울정각원 불교대학	02-2260-3016-8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연화불교대학	02-962-6186
	조계사불교대학	02-768-8600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금강선원불교대학	02-445-8484
경기	금강불교대학	02-898-8200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대덕사불교대학	031-283-3655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봉녕사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봉선사불교대학	031-527-5974
	봉영사불교대학	031-571-0555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자재암불교대학	031-865-4045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화운불교대학	031-335-2576
	법륜사불교대학	031-332-5703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묘적사불교대학	031-576-0784
	약천불교대학	031-942-1252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인천불교대학	032-577-5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025
	영응사선재불교대학	032-567-5277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월인불교대학	033-436-6624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용연불교대학	033-647-1234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마곡불교대학	041-841-6221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89
	영평사불교대학	044-854-1854
대전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수덕사대전불교대학	042-222-1159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2-4200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직지불교대학	070-7675-1080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부산	고심정사불교대학	051-464-8450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법계사불교문화대학	051-711-0700
	불지불교대학	051-816-2241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여여불교대학	010-3564-3284
	영주암불교대학	051-754-2210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부산	원각불교교육대학	051-752-6624
	인과불교대학	051-704-0332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여여불교문화대학	052-267-0108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지장정사불교대학	052-256-3552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관오불교대학	053-472-0108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2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문경불교대학	010-3776-2476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예천불교대학	054-654-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8
	의성불교대학	054-833-2938
	은해사청송불교대학	054-873-2305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266-8150
	구룡사불교대학	055-294-3279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성주사불교대학	055-262-0108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불지수다라불교대학	055-262-6663
	비사벌불교대학	055-533-2295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정종사불교대학	055-336-6867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통도사전법회관 불교대학	055-387-0108
	해인사불교문화대학	055-934-3110
	쌍계사진감불교대학	055-883-1901
전남	강진불교대학	010-3043-2161
	목포불교대학	061-285-0576
	삼호불교대학	061-461-1212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화엄사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광주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선덕사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고불총림 광주 관음사불교대학	062-223-7666
전북	남원불교대학	010-3672-1250
	이리불교대학	063-842-6652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	063-236-6633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제주	서귀포불교대학	064-733-8882
	제주불교문화대학	064-724-6830
해외	LA불교대학	1-213-842-6351
포교원	디지털대학	070-8680-9288
	불교상담대학	02-737-7378
	대한불교교사대학	051-852-0852

謹賀新年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❶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❷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❸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❶ 주민등록 등본 1통 / ❷ 이력서 1통 / ❸ 사진 2매

◆ 종단 사업

❶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❷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❸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❹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❺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❻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❼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

국회정각회 수요정기법회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선방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벌써 1년째이다. 지난해 2월 26일부터 장좌불와를 하며 수좌들이 용맹결사 대정진중이기 때문이다. 첫 출발에는 22명이 동참했지만 현재는 16명이 정진중이다. 6명의 수좌가 중도 포기하고 출문했다. 하지만 이번 결사에 일대사를 마치겠다는 수행 열기만큼은 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하다.

이 용맹결사는 당대의 선지식이자 명안종사인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큰스님의 원력으로 마련됐다. 대원 스님은 "쇠퇴일로에 있는 간화선 중흥을 위해 시작과 승풍진작을 위해 시작했는데, 매일 경책을 통해 용맹정진하는 이 납자들을 마주대하며 한국불교의 큰 희망을 보았다"고 피력했다.

새해 벽두, 지난해 다리를 다친 대원 스님이 불편한 노구를 휠체어에 의지한 채 오랫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서 대중들에게 법석을 펼쳤다. 1월 10일 국회의사당 정각회법당서 열린 국회정각회 및 직원불교신도회 수요법회에서다. 주제는 '나를 바로 보자'이다. 이 법문을 지상중계한다.

정리=박진형 기자

"부처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주제 : '나를 바로 보자'

대원 스님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1957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해 윤고암 스님을 은사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 했다. 88년에 고암 상언 대종사께서 입적하시자 그 유지를 받들어 계룡산에 소실된 옛 제석사터에 학림사를 다시 창건하고 1995년에는 오등선원의 낙성식때 조실로 추대되어 현재 스님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선수행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각회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이 소식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전에서 이 소식을 확연히 깨달아 아신다면 영원히 대안심입명처(大安心立命處)를 수용할 것이요, 머무름이 없이 머물 것이며, 무심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장자 머리 위에 해와 달을 걸고 광명을 대천세계에 비추니 천하가 태평하고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청풍무종적(淸風無 跡)하고
맑은 바람은 지나가도 자취가 없고
백운자거래(白雲自去來)한데
흰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가는데
통신무장애(通身無障碍)하며
몸을 통하여 걸림이 없으며
명주자희롱(明珠自戱弄)이로다
밝은 구슬을 스스로 희롱함이로다

아시겠습니까?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는 머무르지 말고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을 만나거든 급히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란 말입니다. 이 두 길을 여의고 대중은 바로 일러보십시오.

우리는 두 양변을 벗어나야 합니다. 상세히 설명해서 말씀 드리자면 여당과 야당을 뛰어나고 미국과 중국을 뛰어나고, 남과 북을 뛰어나서 양변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양변을 벗어난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야만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양변서 놀아나면 우리 인생은 자유로운 생활을 못합니다.

지식에도 무식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지식은 양변의 시비를 가지고 있어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나 자신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밖을 향해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전도몽상을 이룹니다. 나를 바로 보면 모든 것에 걸림 없는 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도 멋지고 중간도 멋지고, 끝마침도 멋지게 합니다. 또한 과감하게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압니다.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와 무가 융합하는 것을 중도라 이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첨단 과학 시대가 오늘날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준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무한한 불안과 공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것은 편리함도 주지만 공포도 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좋게도 쓸 수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자기들 나라의 패권을 위해서, 또 개인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좋지 못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망이 있는 한 지식을 가지고는 완전한 인류의 편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벗어난 세계야말로 인류에게 영원한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바 없는 응무소주
진리의 무아 세계 이생기심
마음으로 양변이 없음 알고
밖으로 자비로운 마음 써라

응무소주이생기심

그러면 지식을 벗어난 세계는 어떻기에 그렇게 영원한 편안함과 즐거움과 복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부처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요, 신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중생에게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성품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각각 국가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집착된 생각, 대한민국, 중국,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테두리에 머무르는 것도, 사상이나 학문이나 종교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여기에 붙일 수가 없는 것.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종교나 이런 어떤 모양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차원의 세계를 응무소주(應無所住)라고 합니다. 응무소주의 실체가 양변을 뛰어난 세계, 대립된 양변을 뛰어난 차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실체이기에 귀천이 없고, 고하가 없고, 성인이니 중생이니 신이니 하는 일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응무소주라는 머무르는 바 없는 그 실체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합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다고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생기심(而生其心)이라 하고 그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서 마음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드러내서 쓰는 사람은 내가 없는 무아의 차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무아라고도 하며 무주라고 하기도 하고, 머무르는 바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무아와 무주의 마음을 쓰는 것을 무한대한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을 곧 대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와 대자비의 그 마음을 밖으로 쓰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야말로 천국이고, 극락세계를 정착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세계로 발돋움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3차원, 4차원, 5차원 어떤 차원을 벗어난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애자재합니다. 이것을 서로가 걸림이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걸림이 없는 세계

그러면 걸림이 없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눈만 마주쳐도 척 알아차리고 다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통해버리죠. 서로 상통해 버립니다. 그래서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되고 다 잘 됩니다.

그 세계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오늘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내 책임이요 합니다. 만약 모든 직장인이 다 스스로가 똑같이 내 책임이라고 같이 들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서로가 모두 내 잘못이요, 내가 책임진다고 나온다면 얼마나 일이 쉽게 해결되고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가 명예로운 것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불명예스런 일이 생기면 뒤로 빠지고 책임 안지려고 합니다. 그런 속성은 오늘날 명예와 불명예 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변의 마음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응무소주이생기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뭔지, 나란 존재가 뭔지를 바로 알면 그 사람은 응무소주를 알게 되고, 그 때 자기의 무한대한 무아 · 자비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본래 응무소주라는 무아의 세계에서는 귀천이 없고 고하도 없지만, 오늘날 이 세계에는 귀천도 있고 고하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왜일까요? 응무소주라는 이 무아의, 자비의 마음을 널리 밖으로 옮겨 쓴 사람은 쓴 것만큼 무한대하게 밖으로 창조하게 되지만, 그 마음을 도외시하고 버리고 중생의 양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고 나쁜 것을 가리고 따지고 좋은 것은 내가 차지하고 나쁜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로는 밖으로 크게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무소주이생기심의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지식정보 사회, 첨단 과학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영원한 행복과 편안함을 정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지식이 다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잠식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서 드러내면 오늘날 쓰는 이 지식은 다시 잠식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우리들이 응무소주의 이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자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이 확실히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자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청정극락 국토를 이 땅에 바로 세우고 정착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응무소주이생기심을 아는 사람은 밖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스스로 쓰게 되는데 그 쓰는데 있어서는 사념처, 사섭법,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사섭법이란 보시섭(報施攝) · 애어섭(愛語攝) · 이행섭(利行攝) · 동사섭(同事攝)이고, 사무량심은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입니다. 자(慈)는 일체 중생을 내 몸과 하나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비(悲)는 내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을지언정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희(喜)는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捨)는 일체 중생의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생각을 다 버리고, 일체 중생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물질 만능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살려면 바로 우리들이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나 자신에게 있는 응무소주이생기심의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다는 이런 차원의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았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은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해탈인 것이고, 대열반의 세계인 것입니다.

謹賀新年

佛紀 2562年 戊戌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은혜를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 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중아함경)

福

군산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도 연
관음사 도천 동국사 종걸 상주사 도연 성흥사 송월 은적사 석초
보천사 의종 삼보사 법송 수도암 무진 염불사 행담 대명사 법인
정안사 정안 혜원사 혜등 흥천사 법희 (무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TEL 063-453-7800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종 명
신도회장 금강지 임원일동
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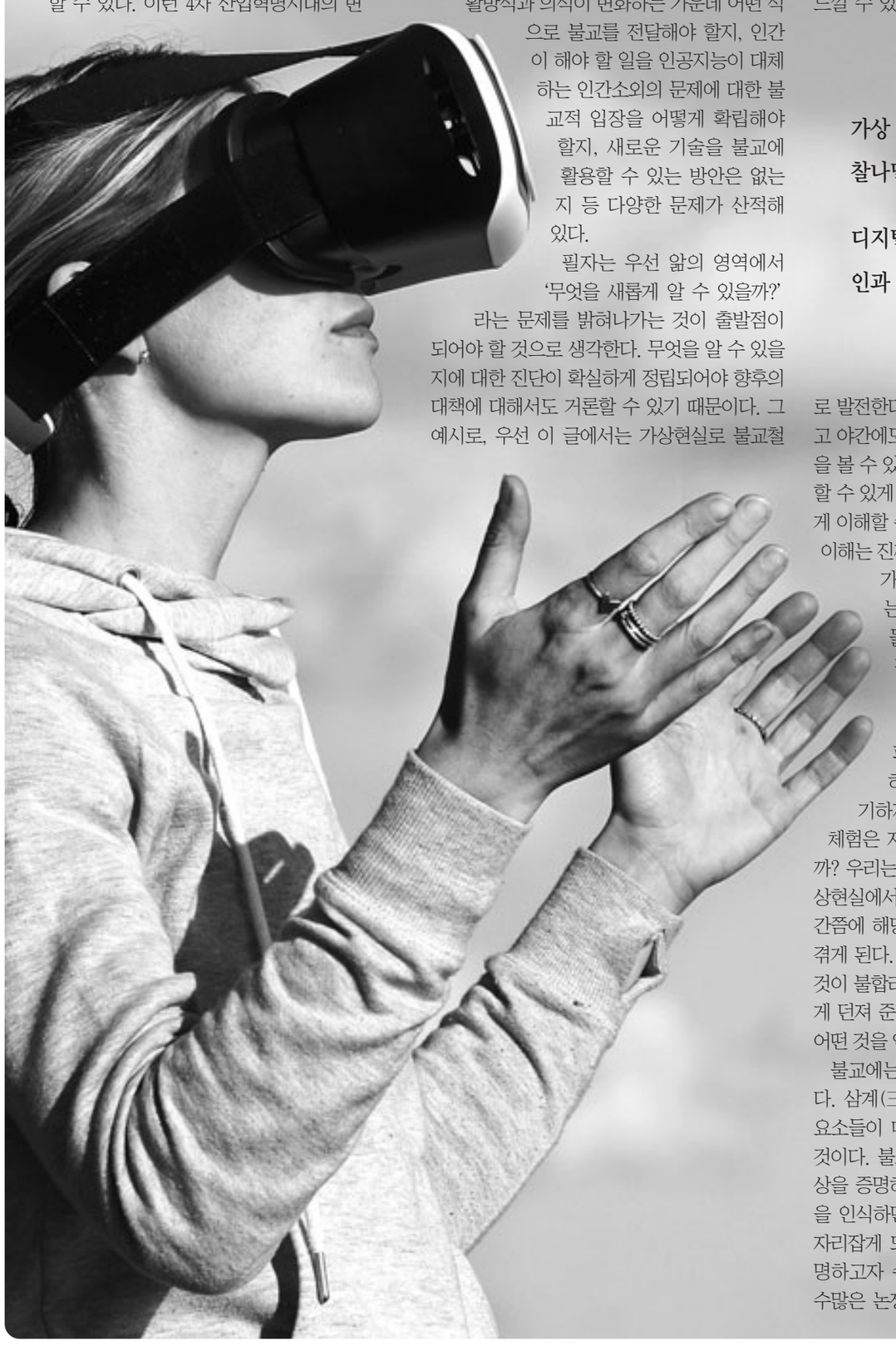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VR서 극명히 드러나는 불교 因果

〈가상현실〉

① 가상현실 통한 불교이론 재검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IoT, 스마트시티, 3D프린팅, 인공지능(AI), 로봇, 무인운송수단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종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앎이라는 영역으로 바꾸면, 정보의 무제한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의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의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불교를 전달해야 할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인간소외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어떻게 확립해야 할지, 새로운 기술을 불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필자는 우선 앎의 영역에서 '무엇을 새롭게 알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밝혀나가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시로, 우선 이 글에서는 가상현실로 불교철학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취리히 예술 대학의 맥스 라이너 교수는 버들리(Birdly)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새가 나는 것과 동일한 체험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여기서 고안된 장치에 올라서서 HMD를 착용하면, 실제로 새가 나는 것과 같은 자연 풍경을 보면서 팔을 움직이는 것과 연동하여 날개가 움직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발전한다면, 이를테면 새처럼 멀리 볼 수 있고 야간에도 적외선을 감지하여 땅위의 동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포식자들을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은 새들의 삶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얻은 이해는 진짜 지식이 될 수 있을까?

가상 경험은 진짜 경험일까
찰나멸, 인공 생명으로 입증

디지털 신호, 인식에 맞춘 세계
인과 효력으로 허위 · 진위 가려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테러나 전쟁 현장을 재현하여 사람들에게 체험하도록 하면, 반전운동이 활기를 띄게 되리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다. 살고 있던 마을이 폭격을 받고, 사람들이 죽고, 정처 없이 피난을 떠나는 체험을 '진짜처럼' 하고 나면 누구도 전쟁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얻은 체험은 자신의 진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상상할 때, 가상현실에서 진짜 경험도 가짜 경험도 아닌 중간쯤에 해당하는 경험이 있는 것 같은 혼동을 겪게 된다. 또한 애초에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준다. 과연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불교에는 찰나멸(刹那滅)이라는 교설이 있다. 삼계(三界)의 모든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들이 매 순간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불교논리학파에서는 찰나멸이 제행무상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이 찰나멸을 증명하고자 수없이 많은 논리들을 생산하였고, 수많은 논쟁을 거쳤다. 찰나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우리 몸이 매 순간에 생멸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윤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생명체의 찰나멸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단순한 질문은 마지막까지 해소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오픈웜(openworm) 프로젝트를 통해서 컴퓨터 안에서 인공생명체가 구현되는 작업이 완성되었다. 예쁜꼬마선충(C.elegans)이라는 길이 1mm 정도의 302개의 신경을 지닌 선형동물은 모든 신경지도가 규명되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는데, 오픈웜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컴퓨터 속의 가상현실은 주지의 사실대로 디지털 신호로만 이루어지고 매 순간 생멸하는 세계이다. 그 속에서 인공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도 찰나멸하면서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높여 준다. 다시 말해서, 찰나생멸하면서도 생명이 유지되는 사례를 한 가지 획득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불교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운동'이라는 것도 찰나멸을 통해서 부정하는데, 우리가 사물의 운동이라고 여기는 것은 한 장소의 사물이 소멸하고 다른 장소에 새로운 사물이 발생하는 것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나오던 당시에는 그런 예시를 보여줄 방법이 없었지만, 컴퓨터 속의 가상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화면이 모두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직접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한편, 유식과 찰나멸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논리학에는 인과효력(arthakriyā)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과효력은 기대목적의 달성, 혹은 찰나생멸하는 존재의 효과적 작용으로도 불리는데, 불이라면 태우는 능력이, 물병이라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인과효력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인과효력을 지닌 것이야 말로 참된 존재라고 보았고, 그것을 지니지 않는 것을 거짓된 존재로 보았다. 그는 이를 확장하여 바른 지식의 근거로 삼았다. 예를 들어 '저것은 물이다'라고 인식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바른 지식을 얻은 것이라고 검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효력을 통해서 존재를 규정하고 바른 지식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생소한 방식이다. 왜 '물이 존재하면 물에 대한 인식은 바른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존재성을 규정할 수는 없는지, 과연 인과효력만으로 바른 인식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 인과효력이 확인되지 않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런데 가상현실에서라면 그런 의문들이 모두 해소된다. 가상세계는 디지털 신호를 우리의 인식에 맞춘 개념화된 세계이며, 허위의 세계지만 그 세계 안에서의 인식에 진짜와 가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도 착각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인식도 있을 수 있다. 가상현실에서 칼에 베일 수도 있고, 장애물에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의 사물들이 진짜 사물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럴 경우 가상세계의 허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식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그 기준을 인과효력에 두는 것이다. 애초에 가상현실에서 보이는 화면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맞춰 조절된 것이다. 우리가 화면 속의 사물이 모두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은 유식의 견해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과 유사하다. 가상현실 속에서의 골프채는 '공을 날리는' 인과효력이 있으며, 그런 효력이 있을 때 '골프채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가상현실은 인과효력을 지닌 것만이 존재로 규정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식의 입장에 선 불교논리학에서 규정하는 세계와 동일한 정의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현실은 '감각 인식의 허위성'과 '인과효력을 통한 진위판별'이 공존하는 세계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가상현실에서 '칼'을 봤을 때, 그것이 물건을 베는 능력이 없으면 '칼'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며, '칼'에 대한 인식은 틀린 것이 된다. 따라서 다르마키르티의 '인과효력' 개념은 가상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상현실에 대한 인과효력 개념의 유용성을 통해서 인과효력이 유식의 입장을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유식의 입장, 혹은 좀 더 확장하면 연기론적 입장에 서면서도 현실에서 인식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시된 것이 인과효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버들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새에 관한 지식이나 가상현실을 통한 전쟁 체험이 진짜 지식이 될 수 있고 진짜 경험일 될 수 있는 근거 역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을 현실과 가상여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과효력에 둘 때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불교철학을 해석할 때, 불교 이론의 개연성을 확보하거나 불교의 모호한 개념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인식의 변화는 그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인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과 함께 새로운 비유, 새로운 사고실험의 장을 마련해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강형철(동국대학교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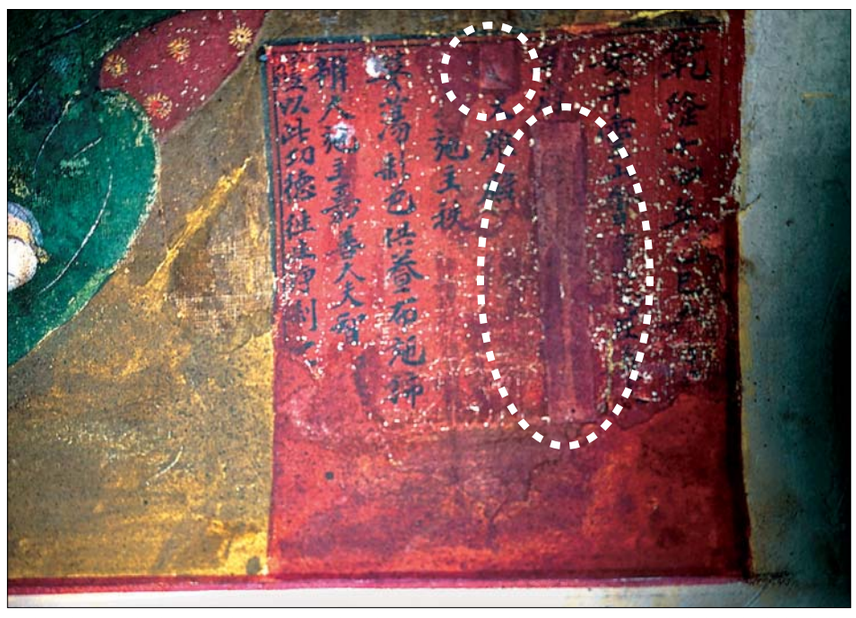
잃고 잊은 성보들, 제자리로 오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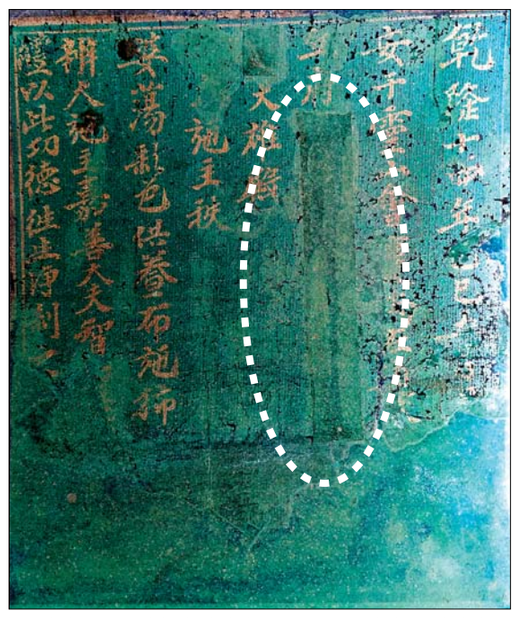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① 연재를 시작하며







2002년 도난됐다가 2014년 환수된 보물 제1956호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사진 왼쪽>와 화기들<사진 가운데 · 오른쪽>. 표시된 부분은 도난문화재임을 숨기기 위해 화기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시중 불교문화재 중 인위적 작업이 추가된 것은 도난문화재로 의심해야 봐야 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진열된 불교문화재를 관람하다 보면 어떤 인연으로 사찰에서 모시던 신상(神像)이 속세로 나와 수집이나 관람의 대상이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이런 고민이 계속되는 이유는 불교 유물 관련 문헌이나 중요한 기록이 훼손된 채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여 년을 조선 후기 부처님을 만든 작가를 밝히는 연구를 하다 보니 "부처님 덕에 먹고 사는 연구자입니다"라는 자기소개로 강의를 시작하곤 한다. 불상을 제작하고 불화를 그린 작가들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작품의 양식적인 분석이나 변천 등의 연구가 전부였던 1990년대 초반에는 작가와 시주자 등 작품 저변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척 건조한 미술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불상을 만든 조각승을 중심으로 개별 불상을 연구하다보니 조성 시기, 봉안 사찰, 작가, 시주자 등을 중심으로 불상, 불화, 범종 등을 조성한 이유를 밝혀내기 시작하였다. 결국 사람 중심의 불교미술사를 추구하면서 사찰에서 유출된 문화재를 분석할 때 관련 인물들을 찾아 조성 시기와 봉안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찰을 떠난 문화재까지 연구의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이번 연재는 사찰에서 유출된 문화재 중에서도 불법적으로 도난된 문화재의 현황을 밝히려는 의도가 많다.

시중에 거래된 불교문화재 가운데 도난문화재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화기(畵記)를 없애거나 조성 연대와 사찰 등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불화, 보살상이나 나한상 등의 보관 장식을 일부 제거하거나 안료를 다시 칠해서 원 작품을 훼손한 경우 등 인위적인 작업이 추가된 불상, 사찰에서 도난을 신고한 불교문화재 등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많은 불교문화재는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사찰을 복원하기 시작한 1600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사찰 내의 전각(殿閣)은 벽면의 크기가 달라서 불상과 불화의 크기, 존상 배치, 설채(設彩)법 등이 모두 달라 비슷한 작품은 많아도 동일한 작품은 없기 때문에 사진이나 관련 자료만 있다면 도난문화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화의 화기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대개 작가는 당대에 작품 한 점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서 화기에 적혀 있는 스님이나 시주자 등을 근거로 도난 불화의 조성 시기와 봉안 사찰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개별 사찰에서 정리된 재산 대장 등이 남아있어 현재 사찰의 성보목록과 비교하면 대략적인 유물 현황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개별 연구자들이 촬영한 사진 등은 유출문화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성보문화재 도난史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엔 삼국 · 고려 作 유출
6.25전쟁 시기 외국인 수집 대상
1960년대 지나면서 본격적 도난

연재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불상 조성한 조각승 연구하다보니
사찰 유출 성보들 추적까지 확장돼
畵記 삭제 등 인위적 작업된 것은
우선 도난문화재로 의심할 정황 커
도난 성보 현황, 제대로 알려볼 것

19세기 이후 사찰이나 사지(寺址)에서 유출되기 시작한 불교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삼국부터 고려시대 유물이 절반으로 유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외국인들에 의해 골동 수집의 대상이 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발전 이후 형성된 재산가들에 의해 조선 후기 유물까지 수집 영역이 넓어지면서 조선후기에 조성된 불화, 불상, 공예품 등이 집중적으로 유출되었다.

이런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골동 시장이나 밀매를 통하여 각 기관이나 개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문화재의 도난 관련 신문 기사 중에는 '불도(佛徒) 가장(假裝)한 사찰 도둑, 유명 사찰 탱화(幀畵) 절도범의 행각(行脚), 절 명단 갖고 다니며 국보급 등 훔쳐… 승주 선암사에서 8천여만 원어치 훔치기도(1978년 11월 10일자 동아일보)', '문화재 전문절도단 극성, 전국 유명 사찰 · 서원 등 무대로 보물 등 해외 반출 가능성(1993년 11월 8일자 경향신문)' 등 수많은 불교문화재 도난 기사가 실려 있다. 결국 불교문화재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급이 일어난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사찰 문화재 도난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 1970년대 이후 급격이 증가했다. 불교문화재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문화재청과 조계종 등 불교 종단에 신고된 문화재들이 대략 30여 년이 지나면서 시중 경매 등에 출품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한 사립박물관 관장이 은닉했던 수백 점의 불교문화재를 수사하여 그중 도난 신고가 된 48점에 대하여 원 봉안처로 돌려주라는 도난문화재 환원에 대한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판결이 선의 취득을 인정하거나 공소 시효가 끝난 것을 이유로 들어 도난문화재이면서도 원래 소장처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찰에서 유출된 문화재의 도난 여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는 경우는 도난 여부를 밝혀보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치게 된다.

더군다나 도난당한 원 위치를 밝혀내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해서 소장처나 봉안처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열심히 사실을 밝혀내고 징찬보다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도난문화재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뿌리를 잃어버린 유물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작업이다.

5년 이상 이 작업을 하면서 즐거운 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험도 있다. 몇 해 전 해외 경매를 통하여 유통된 조선 후기 불화 중에 순천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동악당 진영'은 문화재청과 경찰청의 빠른 대처로 국내에 환수했다. 그러나 2010년 미국 경매에 출품된 순천 선암사 '향서당 담휘 진영'은 이미 경매가 종료되어 다시 소재 파악이 된다고 해도 선의 취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도난문화재가 외국 경매 등의 합법적 거래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와도 원 봉안처로 돌려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구입한 유물을 순순히 기증을 해주는 기증자에게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최근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 경북 지역 사찰에서 도난된 조선 후기 불교회화와 관련된 발표를 제안 받고, 6개월 동안 문화재청과 여러 불교 종단에 도난 신고된 문화재 관련 신문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관련 문헌을 찾는 동안 1983년 이전에 도난당한 내용이 현재 도난문화재 목록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가운데 1965년 5월 11일자 매일신문은 '영주 부석사에 지난 3월 도둑이 들어 국보 19호인 조사당에 봉안되었던 송운당, 봉암당, 단하당의 3폭 탱화를 비롯하여 문화재 여러 점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기사화했다. 이 진영들을 국내외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이 유물들은 그 당시 도난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북 청도 덕사에서 세 점의 불화를 도난당했다는 기사(1974년 10월 26일자 경향신문)가 나왔지만 해당 사찰의 도난신고는 없었다. 따라서 개별 사찰에서는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도난 유물을 파악하여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도난사실을 신고해야 사찰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꾸준히 진행해 온 도난문화재 연구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는 매 순간 공조가 필요하지만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시 기관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연구자와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더 많은 유물이 유통 과정에서 도난 여부가 밝혀져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물을 도난당한 사찰들도 자신의 역사를 되찾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스님들과 신자들도 많아져야 할 것이다. 도난문화재의 유통 근절과 문화재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이 연재를 시작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부산 성의 신협

2017년 출자금 배당률 3.1%
예금자보호 1인당 5천만원



■ 범천동 부산성의신협 빌딩

연지지점	☎ 051)816-7130
양정지점	☎ 051)867-8321
초읍지점	☎ 051)809-4154
범천(불교)지점	☎ 051)633-9120
동래(천리교)지점	☎ 051)867-3641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 FAX 051)642-8361



전문 인력 양성, 템플스테이 발전 '초석'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① 사찰경영과 템플스테이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반인들에게 사찰의 생활은 생경할 수밖에 없다. 사찰에서 숙식하며 생활해보는 템플스테이(templestay)는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린 불교문화 콘텐츠이다. 현재 템플스테이에는 사람들이 연령과 성별은 물론 종교를 떠나서 참여하고 있다. TV 예능프로그램의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템플스테이는 이제 불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거리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불교문화상품이 되었다.

템플스테이는 본래 한국대표 관광상품으로 기획되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시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전통문화 체험상품의 일환으로 사찰에서 숙박하면서 불교문화를 경험하는 정부의 문화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사업주체로 대한불교조계종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정되었던 것이다. 외국인 특히 서양인에게 있어서 사찰은 막연히 품고 있던 동양에 대한 신비로움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이 된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전통 건축물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원색의 단청으로 채색된 목조 건축물은 동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인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어느덧 내국인들에게는 지친 삶 속의 휴식 공간으로, 외국인들에게는 동양문화의 체험 장소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템플스테이가 불교문화콘텐츠의 아이콘(icon)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인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에 주목해야한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이라고 하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법사 스님과 재가실무자를 손꼽을 수 있다. 템플스테이를 여타의 숙박시설과 다르게 특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이다. 만일 템플스테이에 불교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없다면 템플스테이는 일반 숙박상품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사찰의 종교적 특성을 잘 갖춘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인력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템플스테이 만족도는 재참가율로 일정 부분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 재참가자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스토리텔링 능력 키워야

그렇다면 템플스테이 만족도를 좌우하는 운영인력은 어떠한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가?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업무 역량에서 중요한 것은 템플스테이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전문 역량 중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능력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은 제반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각의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템플스테이의 보편적 프로그램인 '108배와 염주 만들기'를 예로 들어보자. 흔히 이 프로그램은 절을 한 번하고 염주 한 알을 실에 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행위는 자칫 참가자에게 있어서 지겹고 힘든 단순 반복적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은 이 단순 반복 행위에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종교적인 성스러운 행위로 전환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그냥 108배를 시킬 것이 아니라 절 한번마다 그리고 염주 한 알마다 기원이 담기는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경(寫經)'에 있어서는 사경을 하는 경전의 요지를 알려주고, 글자 한자 한자를 그냥 베껴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기도의 의식이자 공덕의 방편임을 가르쳐주어서 참가자들이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 만일 그런 의미의 부여 없이 단순하게 글자를 베껴 쓰거나 옮겨 쓰도록 시킨다면, 사경 역시 108배와 염주 만들기처럼 지겨운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손글씨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사경은 붓펜으로 쓰기 때문에 글자를 그냥 베껴 쓰는 것은 지겹고 하기 싫은 행위가 될 만하다.

108배, 염주 만들기, 사경보다 더 기본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사찰을 한 바퀴 순례하면서 전각과 불상, 석탑, 부도, 사물 등에 대한 의미와 역사 등을 안내하는 '사찰 투어'이다. 불자라고 할지라도 불상이 석가모니불인지 아미타불인지 아니면 미륵불인지, 보살이 문수보살인지 보현보살인지 아니면 관세음보살인지 대세지보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리고 사찰에 들어가면 처음에 접하는 일주문과 천왕문, 불이문 또는 해탈문의 차이를 아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그리고 적멸보궁,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약사전 등이 법당에 모시고 있는 주불(主佛)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각의 명칭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또한 많지는 않다.

운영인력 2년內 이직 대부분
전문가 양성 위해 환경 개선해야
교육체제 수립 · 변화도 필수 요건
스님 · 재가, 기획 · 운영 능력 겸비해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관광 시에 스치듯 사찰을 관람했던 사람들이 불상의 종류와 구별법을 알게 되고, 주불에 따른 전각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일주문과 천왕문 그리고 불이문의 의미와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은 신선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보았던 각각의 전각과 불상들에 대하여 차이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이 종교적인 의미와 상징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사찰의 곳곳에 대한 역사와 불교 상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곧 템플스테이의 스토리텔링이다.

장기 근속이 전문성 확보 지름길

다음으로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장기근무자의 배출이다.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숙지하고 체화하고 나아가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근무 경험이 요구된다. 하지만 템플스테이 운영인력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그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지도법사 스님은 소임의 변경에 따라서 템플스테이 업무를 짧은 기간만 맡게 되고, 재가실무자는 여타의 직장과는 다른 근무환경 때문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필자가 템플스테이 주관기관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연구 의뢰에 의하여 조사한 바로는, 현재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상당수는 장기근무가 아니라 1~2년 근무 후 이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연구는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이루어졌는데,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67.9%인 반면 3년 이상은 20.5%에 지나지 않았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이 장기 근무를 하지 않고 1~2년 근무 후 이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6개월 미만 근무자가 31.3%로 가장 많았는데, 그만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는 운영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찰의 일은 대소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무원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종무원간에도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형성되고는 한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 전문인력은 어떻게 해야 양성할 수 있는가? 템플스테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교육체제 수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전문교육체제서 집체 교육

'전문교육체제 수립'은 불교의 사상과 교리, 역사에 기반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단기 집체 교육과 발령 후 사후 교육을 들 수 있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들은 사전 교육 후 발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령 후 사후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중앙에서 집체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마저도 1박 2일의 연수 교육 수준이며, 교육 내용은 불교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홍보, 마케팅, 친절 교육 등이 주를 이룬다. 템플스테이의 전문성은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불교의 전통과 문화가 보다 근원임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별로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령 후 사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템플스테이 소임을 맡았더라도 업무에 앞서 중앙이 주관하는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실효를 위해서는 교육기간이 중요한데, 지도법사 스님의 경우에는 템플스테이 운영책임자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재가실무자의 경우는 불교의 문화와 사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법사 스님과 재가실무자 공히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능력과 운영능력을 겸비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은 장기근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 근로자는 단기간 근무 후 이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근무환경으로는 보수체계, 근무조건, 신분보장, 복지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이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 만큼 인간관계의 형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의사소통 교육과 고충처리제도 도입, 그리고 단위사찰 차원의 정기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 교육'은 주지 스님, 지도법사 스님, 재가실무자간 이해와 대화를 위하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한 사찰에 한하여 템플스테이 사찰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고충처리제도'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고충과 업무상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중앙차원의 의사소통 교육과 고충처리제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는 현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근무지인 사찰에서의 '정기적 대화'가 보다 근본적인 인간관계 개선방안이다. 즉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주지 스님은 지도법사 스님, 실무자, 그리고 사찰 내 다른 소임 종무원들간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 이해를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1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세월따라 변치 않는 가르침 〈아함경〉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② 부처님의 안목

안목(眼目)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의 안목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의 안목이다.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일이니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경전을 읽는 것이다. 수많은 경전 속에서 우리들을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보듬어주시기도 하고, 엄한 아버지가 되어 심한 꾸지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부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심지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우리를 향해 〈아미타경〉을 설법하시는 것을 보면 중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진다.

부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수많은 방편과 설법들이 다 경전 속에 오롯이 담겨져 우리들 곁에 팔만대장경의 모습으로 있다. 수많은 경전들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도 큰 숙제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의 열반을 가까이에서 본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슬퍼하는 이들을 보며 어리석은 비구가 갑자기 울지 말라며 오히려 그동안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런 잔소리는 안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가섭존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이런 말이 나온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부처님법이라 말할 지 난감했다. 속히 대중들과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과 경전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대중을 모아 의견을 구했다. 그리고 번뇌가 다한 무학(無學)의 아라한과를 증득한 499명을 뽑고 제1차 결집을 선언한다. 마가다국의 아자타삿투왕은 이미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이 자기 나라로 옮겨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모든 사원들을 정비하고 있었다. 가섭존자가 왕을 만나 라지기하 베바라 언덕의 칠엽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모으는 결집의 의지를 보이자 왕은 감동하여 결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양하며 후원한 인연으로 맹세한 인연으로 결집하는 동안 스님들은 탁발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계율과 경전을 결집한다는 소문은 온 세상에 퍼졌다. 먼저 우바리존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율을 조목조목 설하며 이 계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상황을 자세히 밝히니 모든 대중들은 한 점 의혹이 없었다. 모두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합송(合誦)을 하며 율장을 정비했다. 그 뒤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설법을 부처님처럼 차근차근 말씀하였다. 대중들은 이 법문을 들으며 마치 부처님이 돌아오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합창하듯이 외우며 즐거워했다. 45년간의 설법은 이렇게 7개월 만에 경과 율을 모두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결집된 경전이 바로 〈아함경〉이다. 아함(阿含)은 아아가마(agama), 가르침, 가르침이 전해짐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가 바로 아함인 것이다.

오랫동안 아함을 대승경전에 빗대어 소승과 대승으로 상대적으로 낮추어 불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처님이 중생과 가장 가까이서 교화한 사랑스런 경전으로 만나야 한다.

보통 아함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읽혀진 한역(漢譯)에서는 장편으로 구성된 〈장아함〉 22권(30경), 〈중아함〉60권(22경), 〈잡아함〉50권(1,362경), 〈증일아함〉50권(472경)의 4가지가 있다.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읽힌 빨리어로 된 니까야(Nikya) 는 〈장부, 디가니까야〉 34경, 〈중부, 맛지마니까야〉 152경, 〈상응부, 상윳따니까야〉2,875경, 〈증지부, 앙굿따라니까야〉2198경, 〈소부, 쿳다까니까야〉15경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둘은 서로 유사성은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월따라 조금씩 변했다고 해도 부처님의 아름다운 마음씨, 따뜻한 말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그 때, 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밝은 선지식이 지혜로 이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② 선지식과의 만남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내 부처님 이시다"라는 말씀은 내가 만났던 선지식이 하신 말씀으로, 선지식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 있는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는 달마 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님은 중생 마음 속 형상 없는 존재이기에 마음 밖의 부처님, 가시적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가도록 지도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밝은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므로 내 부처님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선지식은 만나기 힘든 존재일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지혜를 가진 위대한 분이시기에, 선지식을 만나기 전 공부는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식같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을 이해할 지혜의 눈이 없는 학생 불자시절, 나는 스스로 불교공부에 매우 소질있는 사람이며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만심이 가득했던 나에게도 속세에 어떤 선근이 있었던가? 말로만 듣던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모시고 출가하여 오래 동안 함께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식을 모시고, 수년간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와 오만으로 가득차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식을 만나기 전의 공부는 다 헛것이라는 말씀에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식을 모시고 출가수행생활 4년 그리고 그 후 금강경을 50년 넘게 공부하였다면 적어도 견성성불(見性成佛)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화는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요 속으로의 변화이며, 현재의식의 변화가 아닌 잠재의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겉으로의 변화도 물론 쉽지는 아니하나 속으로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변화요 운명을 바꾸는 변화요, 기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하여도, 또 치열한 구도행각을 한다고 하여도, 마음속까지의 변화 잠재의식까지의 변화는 쉽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 하여도 겉으로의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의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시킵니다. 겉으로 아무리 큰소리친다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경우 사람들을 정말 두렵게 합니다. 겉으로만 착하다면 사람들이 공경공양하지 않지만 속마음까지 착하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감동하며 공경공양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정(定)인가 어떤 것이 참된 혜(慧)인가 하는 것을 밝은 선지식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않는 수도를 통하여서는 진정한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수행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곧 계를 닦고 정을 이루어 혜를 체득하였다는 뜻입니다. 겉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변화하는 것이요, 6식(현재의식)만의 변화가 아닌 7식(잠재의식)까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까지의 변화란 무시겁의 업보업장이 소멸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며 자신만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고, 이는 오직 선지식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화두참구 3요소중 하나인 대신심

〈초발심자경문〉에 삼일수심은(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盡)이라는 말이 나온다. 3일동안 닦은 이 마음은 천년 보배요, 백년을 탐해 모은 재산은 하루 아침에 먼지가 된다는 의미이다.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경책이다.

하지만 생활속에서 이 탐심, 집착심을 뿌리뽑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지 못하므로서 오는 중생병 때문인데, 금생에 이 병을 치유하는 가장 유일한 처방약은 참선이며 간화선 의 '이 뭣고' 라고 생각한다. 중생의 미(迷)한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진심으로 믿고 행하지 못하고, 저 강물처럼 흘러 보내며 육도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 첫째는 대신심이다. 대아(大我)인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는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는 묘각인 축의 작용에 의해서이다. 우리들도 마치 콤파스(compass)의 축에서 원(圓)이 그려지듯이 그 축과 함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본래불이라는 신심의 축이 바로 세워져야 흩어지지 않고 해매지 않아 그 자리 원각(圓覺)과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동시에 주인이 되어 당당히 생사영단(生死永斷) 즉 생사의 고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종(從)노릇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만다. 최상승법에서 신심(信心)은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는 밖에서 구(求)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처 일체시에 언제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 소소영영한 바로 이놈에 즉해서 '이뭣고'로 내 안의 자성불(自性佛)을 철견(徹見)한다는 믿음이다.

〈화엄경 여래출현품〉에 보면 '기제기제(奇哉奇哉) 보관일체중생(普觀一切衆生) 구유여래지혜덕상(具有如來智慧德相) 단이망상집착(但而妄想執着) 이불증득(而不證得)'이라고 했다. 의미를 풀어보면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내가 본래불이라는 신심축이 바로서야 원각 이뤄
집착의 혹(惑)만 떼내면 부처님과 꼭 같은 본래불

널리 일체중생을 살펴보니 여래의 지혜 덕상을 똑같이 갖추건만 단지 망상(妄想)과 집착(執着) 때문에 깨달아 쓰지 못하는 구나"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 망상과 집착의 혹(惑)만 떼어버리면 부처님과 꼭 같은 본래불인 것이다.

통현(通玄)장자의 화엄론 게송에 "불시중생심리불(佛是衆生心裏佛) 수자근감무이물(隨自根堪無異物) 욕지일체제불원(欲知一切諸佛源) 오자무명본시불(悟自無明本是佛)"이 있다. "부처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니 자신의 근기에 따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일체 부처님의 근원(根源)을 알려고 하는가? 자신의 무명(無明)만 깨달으면 그대가 바로 부처라네" 하여, 중생이 한 생각 무명인 탐진치 삼독심서 벗어나면 그대로 부처라 하였다. 한 생각 이전의 허공같이 텅빈 자리가 적멸(寂滅)이며 우리의 본래 성품인 원점인 것이다. 이름 붙이기 이전의 이 자리는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이다. 그 이름도 모양도 말길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나와 대우주와 일월성신 산하대지가 딱 하나가 된자리를 들어내는 유일한 통로(通路)가 바로 '이 뭣고'인 것이며, 이는 곧 부처이고 화두인 것이다.

본래 어둡고, 밝고, 알고, 모를것이 없다. 누구나 본래부터 그대로 부처이고, 모든 생명은 본래부터 깨달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와 깨닫는 대상은 둘이 아닌데, 둘로 나누어 놓고 깨달으려 하니 남북이 갈라진 것이다. 깨달아 증득하는 마음이 앞에 놓여 있으니 장애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고, 깨달음을 구(求)하는 것은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 자기집을 찾는 격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는 불성 확인을 위해 부인 야소다라와 부귀영화를 버리시고 설산으로 향하신 깊은 뜻을 믿는 것이 바로 대신심이다. 최상승법인 화두 '이뭣고'는 승속을 떠나 최상승근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사회에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활구참선 '이 뭣고'를 수행하는 불자들을 말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일 주 문



관음종 조세이탄광 위령재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은 1월 20일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추모 위령재를 봉행한다.



청소년 마음체험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2월 5~8일 예비중학생~예비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월정사서 '제1기 청소년 마음체험학교'를 운영한다.



무술년 합동방생법회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2월 25일 칠포해수욕장에서 무술년 합동방생법회를 개최한다. (041)841-6220



종로구 복지관 극장 열어

정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스님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을 열고 구민들에게 개방한다.



24회 고대 언론인상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2월 26일 진행되는 고대언론인교우회 창립 32주년 기념식서 고대 언론인상을 수상한다.

"새해 노인 인식 개선 불교계 함께 앞장서길"

Interview

이춘성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노인, 사회문제 대상 아냐
부처님도 효·공경 강조해
긍정적 삶의 변화 알리고
불교계 복지도 힘 보태야

"부처님께서는 효를 강조하셨고 쌓여 있는 뼈 무덤을 보고 절하셨습니다. 경전 가운데는 〈부모은중경〉이 있죠. 불교적 관점으로 바라본 노인은 효와 공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요즘 노인문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노인을 문제 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춘성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새해를 맞아 사회적 노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하면서 불교복지가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를 발간했다. 이 회장은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를 통해 서비스 현장서 느끼는 어르신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이 회장은 "재가복지사업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삶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 이 같은 변화는 쉽게 알리기 어려워 어르신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좋은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기획했다"고 수기집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어르신들이 직접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탈자정도만 수정할 뿐 다소 거친 표현이더라도 그대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르신의 변화 과정과 마음이 녹아 있어 읽는 동안 진심이 전해져 감동적이었습니다."

책은 이용자 수기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도 함께 담겼다. 수기를 작성한 봉사자와 사회복지사는 마치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건강과 행복을 빌며 함께하는 삶의 보람을 이야기했다.

신심 깊은 불자이자 복지가인 이 회장은 불교계도 이처럼 노인 인식 개선과 복지사업에 더 많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부처님의 삶을 돌아보면 그 자체가 곧 복지였다. 복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복지관은 부처님 가르침을 숙련된 방편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장이다. 불교계가 복지사업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스카우트, 스키로 불심증장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포천베어스타운에서 '제5회 화랑청소년 인성함양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에는 비로자나국제선원, 수미정사, 정각사, 용주사, 금륜사, 통해사 등 6개 사찰에서 모인 90여명의 한국불교스카우트 청소년 대원들 참여했다. 불교스카우트연맹은 불교교리 교육은 물론 캠핑,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승마, 국궁, 잼버리 등 활발한 야외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참좋은우리절, 다꿈틔움 겨울캠프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겨울방학을 맞아 '2018 다꿈틔움 어린이겨울캠프'를 개최했다. 1월 5~7일 '수퍼매직그레잇 상상(相想)캠프'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 12명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도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출가상담사 도월·선효 스님 위촉

조계종 교육원 1월 12일 위촉식



도월 스님



선효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2일 오전 10시 교육원장 집무실서 도월 스님(김제 망해사 주지)과 선효 스님(가평 백련사)을 비구니 출가상담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스님은 2년간 출가상담사로 활동하게 된다.

승천 스님 후임으로 위촉된 도월 스님은 2004년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2009년 구족계를 수지한 이후 청암사 승가대학과,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재위촉된 선효 스님은 2003년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2009년 구족계 수지한 이후 동학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수료했다. 불교상담심리사 자격 등을 가지고 있다.

출가상담사 제도는 2013년부터 출가상담을 위해 운영해온 제도로 육원에서 운영중인 출가상담전화(1666-7987)를 통해 출가상담요청을 하는 이들을 항시 상담하고 있다. 또한 행자교육(입문교육, 수계교육)의 상담과 조계종 출가사이트에서 출가관련 온라인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지원… 한파에도 '훈훈'

1월 11일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월 11일 법인 사무실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숙 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자, 박지영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1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는 이현자(여/가명/47세/경추간판장애, 척추협작), 박지영(여/가명/40세/췌장 꼬리의 악성 신생물), 강숙자(여/가명/52세/뇌경색) 등 총 3명이다.

이현자 씨는 식당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지만 척추관협착증뿐만 아니라 말초혈관병증 및 괴저를 동반한 당뇨병성 질환이 발생, 희귀난치성질환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까지 나타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일용직 근무자인 박지영 씨는 작년 10월 갑작스러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강숙자 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오른쪽 수족마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자비실천 종단으로 거듭나자"

원효종, 1월 9일 경주서 신년하례법회



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1월 9일 경주 충현로 총무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정광 스님과 총무원장 우석 스님, 종회의장 운오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신년교시에서 "올해는 부처님 법을 넓게 펼쳐 망상과 착각속의 삶에서 벗어나자"며 "보살도의 삶으로 끈기 있게 열심히 살아 소원성취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우리는 삶속 인간으로 나서 사는 것이니 생활 속에서 불성과 참나를 찾기 위해 물러남 없는 정진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종회의장 운오 스님은 "종단화합과 발전에 최선의 힘을 모아 가겠다. 자비실천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도스님들의 법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식후에는 종정 정광 스님과 총무원장 우석 스님이 소임자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지역사찰 간부들에게는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응공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월 5일 총본산 동명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장 보운 스님, 원로의원 홍원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신년하례법회는 연초에 불법승 삼보에 신심을 모아 참배하고, 종도의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각오를 점검하는 날이기도 하다"며 "깨달음의 세계로 다함께 정진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16기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입회비(교재비 포함) 20만원을 제외한 1년 과정 교육비 일체 "무료"

■ **범패 의식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다루는 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 법 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 바라춤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게바라

■ **지도교수 :** ⇨ 종송. 도량석. 예불. 각단불공 및 목탁. 요령. 태징. 북 치는 법 [동허스님]
⇨ 작 법 : 나비무. 바라무 기초과정 [지공스님]
⇨ 천도재의식 전과정. 작법무 전문과정 [보유자 일초스님]

● **개강일시 : 2018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강의요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2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9-6)
전화 : 032)529-6708 / FAX : 032) 529-6709 /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나비춤)보존회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사찰 내 불교문화 해설, 新 포교 원동력

부산불교교육대학 불교문화학과 인기 높은 이유는?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불자는 아니지만 주말마다 취미 삼아 산과 사찰을 찾아다니는 A씨. 그는 안식을 얻기 위해 고즈넉한 산사에서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마주하곤 한다. 하지만 여느 사찰을 둘러봐도 불교문화나 사찰에 담긴 옛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이가 없어 매번 아쉬움을 느낀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각 사찰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불교문화포교사'를 양성한다. 일반 문화해설사와는 달리 불교문화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포교사로서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불교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1월 9일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새로 개설한 불교문화학과 수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수업 주제는 '관음전과 수월관음도 그리고 지장전과 감로도'였다. 수강생들은 어람관음(물고기가 담긴 바구니를 든 관음)과 하얀 빛깔로 청정함·자비를 상징하는 백의관음보살 등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한 불교문화에 귀 기울이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서 깊은 불교역사·문화
현장서 알릴 전문인력 부족
불교문화포교사 양성으로
문화 확산·포교 활성화 도모



부산불교교육대학이 불교문화학과를 통해 불교문화포교사를 양성 중이다. 사진은 지난 1월 9일 진행된 수업.

강의는 지난해 9월 신설됐으며 오는 2월 13일을 끝으로 학기가 종료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되며 현장학습 및 삼사 순례를 통해 직접 불교 문화재를 마주하는 기회도 갖는다. 강의 내용은 불교문화 개론 및 불상과 수인, 불교우주론을 담은 가람배치 등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85명이 수강 신청해 대학 내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거제도에서 매주 강의를 찾아오는 천주교 신자가 있을 정도로 종교의 벽을 두지 않았다. 종강 후 매년 강의가 새롭게 마련되며 '불교문화포교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불교문화포교사' 민간 자격증 인허가 심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한국 전통문화의 80% 이상이 불교문화다. 하지만 이를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 잘 설명해줄 인력은 많지 않다"면서 "역사가 짧은 기독교에도 '기독교문화해설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교에 해설사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기존 문화해설사와 달리 불교문화를 전문적으로 알고 불자와 일반인에게 깊이 있게 설명해 줄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학과를 신설했다"고 불교문화포교사 양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해설을 넘어 일반인에게 쉽게 불교를 알려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강생들은 "신행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수업 전과 후 사찰 방문에 큰 차이가 생겼다"면서 "강의는 포교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71·총동창회장) 씨는 "신행생활을 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강의를 듣고 난 후 사찰 문화재 안내판마저 새롭게 느껴진다"며 "관세음보살이 갖는 의미를 자세히 알게 된 뒤에는 집에 모신 관음보살님이 더 애틋해지고 신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준동(58·부학장) 씨는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30여 년이 됐지만 불교문화학과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일반인이 경전을 중심으로 불교를 접하기엔 내용이 쉽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즐겁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설명하기에는 불교문화가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사찰과 연계해 활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현재 불자 300만 명 감소와 탈종교화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불교문화포교사가 새로운 포교 지평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도심 포교에 앞장선 불교대학 대표주자다. 현재까지 졸업생 1만5,000여 명과 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승려 100여 명을 배출했다.

부산남구불교聯 나눔으로 새해 열다

600만원·쌀 2400㎏ 기탁

부산남구불교연합회가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과 자비의 쌀을 나눴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월 8일 부산 남구청 회의실에서 '남구불교연합회 이웃돕기 성금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남구불교연합회는 성금 600만원과 쌀 2400㎏을 전달하고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했다. 성금과 쌀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에 각각 전달됐다.

회장 지원 스님은 "지역 사찰 및 신도들의 신심으로 모아 온 정성"이라며 "어려운 이웃 위해 잘 회향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따뜻한 버팀목이 돼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남구불교연합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화답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2013년 10월 수영구·남구불교연합회에서 남구불교연합회로 분리, 재창립됐으며 2014년부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하성미 기자



고창 선운사가 지장천불 조성을 위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천불을 점안해 지장성지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회향법회서 선운사 대중이 예를 올리는 모습.

지장성지 면모 다진 고창 선운사

지장천일기도 회향… 천불 점안법회도

지난 2014년 4월 입재해 3년여 간 진행된 고창 선운사의 지장보궁 지장천불 조성 천일기도가 원만 회향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7일 지장보궁에서 지장천불 조성을 위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지장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점안법회는 삼화삼청, 신중작법, 점안식, 관음시식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운사 승가대학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학인스님들과 선운사 대중스님, 천일기도에 동참한 불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천일기도와 지장천불 조성불사에 동참한 불자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선운사 사부대중은 불자들의 기도 원력을 바탕으로 기도와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운사는 천일기도를 진행하면서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을 하는 등 기도와 수행을 병행하면서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왔다. 지장성지로 널리 알려진 선운사는 이번 지장천불 점안을 계기로 지장성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선운사는 1월 6~10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단기출가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각박한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는 총 7명이 동참해 한국불교 전통문화와 수행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출가체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예불, 좌선, 1080배, 걷기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매일 발우공양으로 점심공양을 했으며,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오후불식도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불교 새해 목표, '전통계승·사회공헌'

부산불교연합회, 5일 신년하례회… 사업기조 발표

부산불교 승·재가가 한 자리에 모여 1년간 일궈나갈 목표를 공유하고 의지를 다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5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부산불교는 2018년 주요사업으로 △부산연등축제 통한 불교문화와 전통 계승 △팔관회 중심으로 뿌리내리는 인간성 회복 운동 △범어사와 사명대사 추모대재 중심으로 호국불교 역할 담당 △부산 16개 구군불교와 재가 신행단체 화합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에 방치돼 있는 귀무덤 발굴과 위령재 사업을 진행하는 등 호국불교 역할을 맡아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 불자의 신심과 신행 결집체"라며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법의 등불을 켜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년하례회는 주요사업 보고 및 봉행사, 격려사, 공로상 시상, 축사 및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상은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박화자)가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 심산 스님을 비롯한 부산불교계 주요 인사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사)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조연)는 1월 9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회장 조연 스님은 "국가의 평화와 발전, 정치안정과 더불어 2월에 열리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탈 종 공 고

사찰명 : 보광사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 4길 8-59 • 법명(속명) : 용수(양택근) / 법화(박향림)
사찰명 : 천궁암	• 주소 : 대구 동구 송정 1동 318번지 • 법명(속명) : 소운(최두현)
사찰명 : 정화사	• 주소 : 충남 천안시 북면 연춘리 243-1 • 법명(속명) : 경천(김의중)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사)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979년부터 국내최초로 각종 마이크를 연구,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온 음향계의 원로 (해월)김문화가 몇 달간의 법당 실험 후 드디어

모든 스님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마이크 -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社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고성능 마이크 출시!
염불, 법문전용 초 원거리용



탁좌에 꽂은 모양

-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가격 : 175,000원(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건 모양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 급 품 목◆
-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 일반 스테레오엠프
-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백천만겁 쌓은 죄업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 없이 사라지네. 본래 없는 죄업은 마음 따라 일어나니 이 마음을 비울 때에 죄업 또한 사라지네.

– 천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법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어렵고 힘들땐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
원인사+조상찾는법
단기간에 책임지도
(지리산 현담)
010-4540-0061

불자가정 국제결혼 상담 (초.재혼)
결혼의 조건으로 개종을 서약하는 동남아의 형태, 이교도들 만행을 볼수없어 스님이 직접 중매함.
동남아에 거주하는 스님들 5개국연계 (불교인만가능)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교인의 결혼을 성사시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사찰과 연계하여 성사시킴
인터넷전화
070-4001-98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010-4415-5780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269-36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풍경 좋은 산사에서
(경기 이천)
031-641-6311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칠곡)
010-8266-878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010-3525-9919

비구니스님, 보살님.
40-50대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거주비 무료, 임대가능.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사찰 포교원 부전 요양원
서울 경기지역
대출 (저축은행)
010-5381-1419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좋은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
우리들의 내면에 빙의 (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맛 샘나 식물성 콩고기
최신 국내기술로 만든 식물성 조직 콩단백 효모와 항산화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소화흡수 충분한 고단백질 영양섭취
전립선,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주문전화 1661-4288
농협 301-0222-880671 (주)샘나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성내는 자에게 같이 성내지 않으면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스스로를
이기고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이다.

– 상응부경전 –



마산 부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요사채. 산신각. 토지 18,000㎡
- 깨끗하고 산중기도 사찰
- 양도 23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200평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외 ◎ 요사 : 60평
◎ 매가 : 28억 ◎ 매가 : 2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진주 사찰(급) 안내
- 목조법당.요사채2채.산신각
- 토지 3,300㎡. 위치좋음
- 마을주변 산사찰
- 운영 잘되는 기도 도량.
- 양도가액7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 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납골부지 포함
- 가액 : 2억 3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4억 8천

010-2591-4736

주거 또는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평수 230평, 건물 30평
- 계곡물 사시사철 흐릅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943-14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기도방 6칸, 친견실, 산신각, 창고, 일주문
- 가액: 5억 8천만(직통전화)

010-5920-5899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사
- 토지 457평, 하우스내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3천 8백

010-5258-1570

토굴 분양 안내
- 총 7개동 (내부시설 완벽) 1개동 대지면적 47평, 건물면적 10평
- 양도가 : 6천만원
- 남해바다.산.사찰. 풍광이 어우러진최고의 명당
- 황토 구들장 구조
- 위치따라 조정됨
- 경남 남해군남면홍현리 581-2(무지개로 81번길23-34)

연락처 :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정읍(구미공단)
- 낙동강 전망(최고의 기도처)
- 구미공단인근
- 부지 : 538평,건물 : 2층 120평 2층 : 법당, 1층 : 요사채
- 가액 : 12억 5000만원

010-3532-71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 ㄱ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 포함)
- 준공일 2012년 12월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010-7449-29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금강상류 청정지역
- 마당까지 차량진입 뒤에 산
- 전기, 지하수 설치되었음
- 토지 : 전, 평수 : 600평
- 가액 : 8천만원

010-8927-8382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주문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그냥 무조건 이야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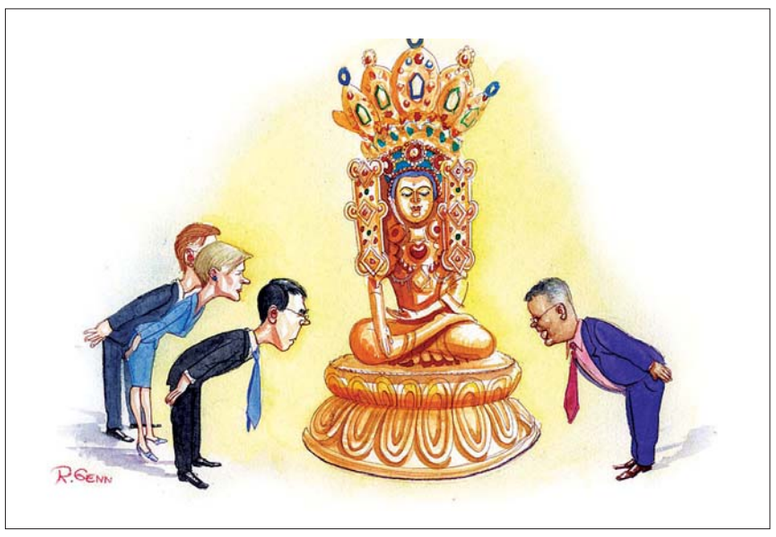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美 마음챙김 열풍… 벌써 $10억 규모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사원복지 수단으로 '각광'

내셔널리뷰 1월 1일 탐사보도 명상과 더불어 불교도 관심 늘어나 BUT 장사꾼 몰리고 타종교 견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미국 기업서 사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수단으로 마음 챙김 명상이 대세다. **사진출처=내셔널리뷰**

미국 기업서 사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수단으로 마음 챙김 명상이 대세다.

미국 시사지 '내셔널리뷰'는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특이한 것이 미국 회사들의 새로운 가스펠(gospel, 복음)로 자리잡았다"고 1월 1일 보도했다. 기업서 실행되는 마음챙김 명상만 10억 달러(한화 약 1조 705억 원)규모이며 '마음챙김 명상 지도사'라는 직업도 새로 생기는 추세로 최고의 명상지도자는 "실리콘 밸리 창업자 만큼 돈을 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내셔널리뷰'는 "명상 그 자체는 불교나 부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서도 명상 바람이 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불교를 내새우지 않아서 각광받기 시작한 명상은 되려 미국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명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자 미국 내 불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불교에 관한 서적들이 여럿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태고종의 수행자이기도 한 로날드 퍼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는 "기업에서 명상 관련한 회의를 자주 연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제 기업의 공공연한 회의의 주제가 됐다.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기업가도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기업 내 명상이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명상과 불교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서 봤을 때 비불교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불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불교를 단지 동양의 이국적 정서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명상은 기업과 정부가 나서 개인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셔널리뷰'는 이런 명상의 열기가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드러냈다. 명상붐 이전에 단발적으로 유행하던 다른 '힐링' 열풍과 지금 유행하는 명상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명상 시장이 커지자, 이와 관련 없는 장사꾼들이 명상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부처님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명상을 장사로 사용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실태"라고 설명하며 "명상을 장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명상 시장이 잡아먹히는 순간 이 시장은 변질되고 이전에 다른 트렌드들과 다르지 않게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셔널리뷰'는 종교적 이유도 덧붙였다. 다종교가 함께 모여있지만 미국의 대다수는 개신교와 가톨릭교 신자다. 불교와 함께 커지는 명상을 달갑게 보지 않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시작된다. '내셔널리뷰'는 "단지 머리를 밀면 누구라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예전부터 다양성을 인정해온 불교는 기득권에게는 상하관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다분해 위험요소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뉴델리 한 복판 불교전시 '대성공'



보리수나무서 고행하는 붓다를 그린 아비색 징스(Abhishek Singh)작. 펜과 잉크.



붓다와 중생의 머리 조각. 대화하는 모습을 표상했다. 부란 키누(Burhaan Kinu) 사진.

그림, 조각 등 볼거리 '풍성' 불교 전시로 유례없는 흥행

뉴델리 오자스 미술관서 '자애의 눈빛: 미술에 각인된 불교(Benevolent Gaze: Buddhist Imprints In Art)'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도 언론 '힌두스탄타임스'는 1월 6일 뉴델리서 열린 불교전시에 관광객 및 현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됐다고 보도했다.

불교에 깊이 귀의한 수행자들의 작품을 전시한 이 전시회는 불교미술의 장르를 확장했다는 평을 받는 50여 점의 미술품이 모여 있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번 전시는 인도서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조각가 KS 라다크리슈난(KS Radhakrishnan), 조각·미술가 사티쉬 구프타(Satish Gupta), 화가 아비색 징(Abhishek Singh), 사진가 아디타 아리야(Aditya Arya) 등이다.

전시는 뉴델리에 위치한 오자스 미술관서 1월 14일까지 진행됐다. '힌두스탄타임스'는 그림, 조각 뿐 아니라 예술적 사진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했고, 힌두교가 국교인 인도서 유례없는 불교전시의 흥행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한 해 목표 세워 선하게 살아라"

달라이라마, 세계인에 신년 메시지 부처님의 초전법륜지 사르나트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새해를 맞아 인도의 사르나트에서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출처= 더 티베트 포스트**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 변화는 개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즉 내면에서 외부로 향합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신년메시지다. 달라이라마가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일 인도의 사르나트에서 신년 메세지를 전했다고 '더 티베트 포스트'가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5일간 부처님이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를 방문했다. 구랍 30일, 31일 양일에 걸쳐 '마음에 대한 과학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한 달라이라마는 방문의 마지막 날인 1월 1일 세계인들을 향해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 모두는 시간 여행자다. 한 달, 한 주, 하루, 한 시간 등 우리는 시간을 여행하고 있다. 오늘은 이제 2018년"이라며 "여러분이 2019년의 오늘에 2018년을 되돌아 볼 때 어떻게 만족스럽게 '난 한 해를 잘 살았어, 한 해의 목표를 잘 이뤘어'라고 하고 싶은가? 아니면, 결국 스스로가 일으킨 모든 문제들을 후회하며 되돌아보고 싶은가?"라고 대중에 물었다.

달라이라마는 이어 "새해가 시작되고, 앞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한 해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한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행복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실제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하게 살겠다는 목표와 의식을 가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등으로 퍼진다.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다주는 방법이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 변화는 개인에게서 시작된다. 즉 내면에서 외부로 향한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외부나, 위에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 티베트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한 해를 선하게 살 것을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여보세요? 스님, 상담 좀 해 주세요"

종파 넘어 '불교 전화상담' 화제 6개 종단, 150여 스님 자원봉사 필요시 대면·서면상담도 가능해

일본서 종파를 넘나드는 다양한 스님들이 전화로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을 상담 해주는 '불교 텔레폰 상담'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며 일본 인터넷 언론 '이로이로'가 1월 6일 보도했다.

이 상담을 전담하는 일본 (사)불교정보센터는 약 35년전인 1983년 설립됐다. 당시 설립자들은 일반인들에겐 사찰의 문턱이 높다는 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화상담이라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쿄권내 9개 교단에서 뜻을 가진 스님들이 모여 전화상담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시작했다.

센터는 "일본서 불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종교라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처로서 현대사회와 함께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종파와 교단을 넘어 단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기존 일본불교계에선 이미 각 종파가 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설립멤버들은 특히 일본의 전국청소년 교화를 위한 단체에 속했던 스님들이었다. 당연히 한데 모이는 게 자연스러웠고, 다양한 종파와의 만남이 교단이 아닌 개인과 개인으로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는 일이었다.



일본서 종파를 넘나드는 다양한 스님들이 전화로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을 상담 해주는 '불교 텔레폰 상담'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불교정보센터 홈페이지**

2008년에는 전화상담건수가 14만 건을 돌파했다. 3대의 전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연 간 4200~4300건의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설립당시엔 묘지 이장이나 천도재, 신앙상담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인생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상담이 반수를 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선 "일반적인 카운슬링·전화상담의 방침은 경청하는 것이 주가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대기설법, 애어섭(愛語攝)의 수행을 실천,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보살행을 중점으로 둔다. 상담에 있어서 설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각 종파의 종조들, 경전에서 설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에 대답한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다.

'사람과 사회에 다가가는 불교'가 방침이라는 불교 텔레폰 상담은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거리 상담, 강사파견, 강사초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명을 바라보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수화·고독화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6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4〉 삶 전체를 수행으로 만들어라

고통 들이쉬고 치유를 내쉬어라



사람들은 영적 수행을 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곤 한다. 지금과 같이 바쁜 세상에서 자기 삶의 영성을 다듬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일들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영적 수행이 우리의 기나긴 할 일 목록 중 맨 끝의 항목일 때 이를 실천하기란 매우 힘들고 대개는 이를 해내지 못한다. 이에 대한 내 대답은 간단하다. 영적 수행은 목록 중의 한 항목이 아니다. 이는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을 하는 방식이다. 마음가짐이고 태도다. 나는 하루 종일 숨을 쉰다. 그러니 이를테면 내가 세 번 연속 호흡함을 의식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산만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수행 중인 경구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다른 활동으로 채워질 시간을 소모하는 듯 보이는 명상 수행마저도, 내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고 집중될 때, 어제도 미처 소화하지 못한 채 오늘로 무작정 돌진하기보다 내 삶을 정리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절약되는가를 알면 실제로는 훨씬 적은 시간을 소모하는 셈이다. 이 요점에 비추어 볼 때, 수행이란 삶 위에 부담을 더 얹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삶 자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선불교의 전통적 훈련은 이 요점을 표현하고 더 확장한다. 사찰의 일상은 삶으로서의 선을 가장 잘 구현한 본보기다. 절에서는 참선 시간에 참선을 하고, 식사 시간에 식사를, 산책 시간에 산책을, 대화 시간에 대화를, 취침 시간에 취침을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는 일에 끊임없이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일을 전심으로, 오롯이 수행한다. 마치 명상할 때 온갖 걱정과 번뇌를 놓고 자기 호흡으로 부단히 복귀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부단히 복귀하며 자기 앞에 놓인 과업을 명상의 대상으로 활용한다. 영적 수행의 과정과 의미를 묻는 질문에 조주 대선사가 한 대답처럼, "죽은 먹었는가? 그럼 발우를 씻어라!"

사찰의 본보기는 현대의 선 수행자들에게도 일상생활의 과업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역시 먹고 자고 걷는 등의 일을 한다. 영적 수행의 마음가짐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추가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삶 전체를 수행으로 만들라'는 말은 마음 챙김의 경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요점에는 두 개의 경구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진지한 태도를 길러라(전통적 경구: 다섯 가지 힘을 수행하라).'

영적 수행에서 가장 큰 도전은 시간이나 재능이나 집중력이나 적절한 분위기나 환경의 부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장 큰 도전은 자신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영적 수행이 좋은 것이고 자신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믿는다 하더라도, 진짜로 마주했을 때 이것이 내게도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생각지 않는다. 혹은 자신이 바뀌기를 정말로 바라지 않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기 수행에 진실로 진지해질 수 없다. 이는 한 바퀴 돌아 첫 번째 요점, 시작하기로 결심하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며, 이 요점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동기를 재발견하기 위해 삶을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구 역시 우리가 자신의 동기를 찾고 강화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힘으로써 도움을 준다. 다섯 가지 힘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마련된 전통적 수행 목록인데 그 내용은 △강한 결의 △익힘 △덕의 씨앗 △꾸짖음 △열망이다.

강한 결의는 어감 그대로다. 이는 나 자신을 고귀한 영적 수행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 수행이다. 이는 내 결함이 아무리 크든, 내 내면에는 구도를 완수할 강한 에너지가 있으며, 나는 이를 원한다고, 이야말로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 힘은 이 첫 번째 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새로운 습관은 익힘과 더불어, 반복 및 반복된 훈련과 더불어 확립된다. 새로운 습관은 오래된 습관처럼 무의식적이지 않고, 내 최선의 동기에서 우러나온 이유로 내가 충분히 생각하여 계발하기로 선택한 습관이다. 익힘은 케케묵은 뇌를 씻어내어 일신하는 일이다.

덕의 씨앗은 인간으로서 이어받은 고귀한 유산에 대한 깨달음이다. 첫 번째 요점에서 논의했듯이, 인간이 된다는 건 희귀하고 귀중한 일이다. 우리 모두는 이 점을 이해한다. 우리의 인간 된 유산은 지혜와 자비와 자애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생명에, 그에 대한 존중과 찬미에 온전히 값하는 일이다. 이는 당신의 본성이자 나의 본성이자 모든 인류의 본성이다.

영적 수행은 업무가 아니다
삶 자체이자 살아가는 방식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동기를 발견해 삶을 성찰하라

네 번째 힘인 꾸짖음은 우리가 줄기차게 하고 있으며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수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불교 또는 아시아의 전통적 관점이 현대의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경우다. 그러므로 이 경구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히 이해하고 수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 힘인 열망은 맹세 또는 서약이다. 앞에서 나는 선 수행에서의 사홍서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확실히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서약이다. 하지만 너무 드높아 채우기 불가능한 열망을 품어선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비롭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는 비단 불자만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다.

걱정 거둘 때 삶 개선된다

네 번째 요점의 경구 하나가 더 있다. 매우 중요한 경구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비해서도 수행하라.'

첫 세 가지 요점은 주로 특별한 상황에서의, 특히 어려울 때, 고통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자비를 베풀려면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역경의 길로 바꾸기 위해서도 어려움을 마주해야 한다. 힘든 것을 대면하기보다 그로부터 도망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반대로 돌려야 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행을 좋은 느낌이나 즐거운 경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수행이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힘든 시기에 수행할 수 없다면, 역경 속에서 존재하고 행동하는 오랜 방식을 거꾸로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몰하고 우리의 수행은 그 가치를 잃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으로 넘어가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영적 수행을 끔찍한 순간순간과 마주하는 음울한 과정으로 여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길에는 크나큰 기쁨과 행복이 존재한다. 사실 수행을 계속해 나갈수록-심지어 일이 잘못되고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도-행복은 더더욱 커진다. 영적 수행은 진정으로 우리 삶을 더 낫게 해준다. 그러나 이는 수행을 그 자체로서 계속해 나갈 의지가 있고, 삶이 더 나아지는 데 집중하지 않을 때만 그러하다. 이것은 역설이다. 삶은 개선에 대한 걱정을 거둘 때에만 개선된다.

그러나 이 모두는 좋은 때건 나쁜 때건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라는 데 유의하라. 종교에 대해, 그것이 왜 존재하고 인간 문화와 개인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곧 삶을 지나쳐 그보다 더 크고 신비로운 질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모두는 죽으며,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고 소화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 삶을 위해서도 영적 수행을 하지만, 실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죽음과 슬픔과 상실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삶과 죽음의 분리는 인위적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삶'이나 '죽음' 같은 것은 없다. 선가에서는 '생사'를 하나의 현상으로 이야기하며 당연히 그렇다. 시간의 흐름도 생사다. 순간들은 떠올랐다 사라지며, 이는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순간이다. 상실은 끝없이 계속되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은 할 수 있다. 고통을 들이쉬고, 치유와 안도를 내쉴 수 있다. 그리고 이기심이나 공포나 절망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또 너구나. 내가 오래전부터 너한테 썩 꺼지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야. 나는 다시 호흡을 해야겠어. 사랑과 자비에 대한 명상을 계속해야겠어."

그런 다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수행해온 모든 것들을 상기할 수 있다. 삶이 꿈과 같음을, 실체 없이 모호하게 오고 가는 현상들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의 시점 이후에 삶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는 지금까지 항상 움직여온 바로 그 리듬에 맞추어 움직일 것임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실제로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속하려는 결심을, 결의를, 열망을, 덕의 씨앗에 대한 믿음을 품고 수행 중이라면, 여러분의 수행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을 때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죽음을 맞을 때 자신의 수행을 그들의 병상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장 귀중한 순간에 자신감과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시작 단계에서 말했듯이 선 수행은 매우 단순하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대한불교능인종 교육원
2018학년도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능인종 교육원에서는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 하고자 합니다.

6L 2M

■ 자 격 : 삭발 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8년 3월 5일(음력 1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제 의식. 관음시식 등, 사물다루는 법 (실전위주)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개인지도
■ 수강료 : 월 10만원 (수시모집 가능)
■ 강 사 : 수암, 일산, 덕우 (외전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사 진영포교당 : 055) 343-2267-8700 / 수암 010-5488-7060

(사) 대 한 불 교 능 인 종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5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대행 스님

정신계와 물질계의 양면이 작용돼야 에너지가 나온다!



그림 · 최주현

마음의 에너지를 쓸 수 있으려면…

질문 새해에도 큰스님의 법희 충만한 자비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어두운 사바세계에서 하루하루,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 식솔들을 마음법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내 안의 무한 광대한 에너지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조차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내 안의 충만한 마음의 에너지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내가 더 말을 안 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와 일체 만물이 사는 거와 고정됨이 없이 찰나에 나투면서 돌아가는 그 모두를 봤을 때 일체가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는 까닭에 더 이상 불법(佛法)이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죠.

말을 하는 순간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 일체제불의 마음이 통틀어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아신다면, 그 일심조차도 공(空)해서 이 세상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내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운전수는 중심을 잡고서,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중용이며 중심입니다.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있고, 이 세상 모든 살림살이도 다 내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를 알지 못하고는 남의 마음도 모릅니다. 입력이 돼서 자꾸 현실로 나오는 거를 나오는 데다 다시 맡겨 놓는 것이 재입력하는 것입니다. 앞서 입력된 거를, 녹음했던 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녹음한다면 앞서 녹음됐던 것이 무산돼 버리죠.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도.

도둑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난다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려서 그러지 않도록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놓는 겁니다. 맡겨 놓는 겁니다. 선행을 할 때는 선행을 하는 대로 감사하게 '선행하게 해서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 또 놔야 합니다. 그렇게 양면을 다 놓으면서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구한다면 아주 진실하게 깨달음의 소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 양면이 작용이 돼야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아무리 물질계의 50%에서 지금,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거를 다 충족시키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가 마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에너지는 충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삼재가 들었다 뭐가 들었다, 이거는 혼란이 많이 오는데, 어떠한 애고가 왔든지, 예를 들면 이사를 잘못 간다는 문제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것은 내 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그저 내 가고 싶은 날 이사 가면 되고, 삼재가 들었다 하면은 삼재가 들었다는 것도 관습입니다. 관습에 의해서 모든 점을 그르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잘못돼서 들어오게 되면 '잘못되는 것도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나로 인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가 없다면 부딪칠 것도 없으니까 내가 있는 반면에 오는 거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나온 거니 내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진실을 가지고 맡겨 놓는다면, 나를 발견하고 실험하기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재료로 알고, 내가 괴로운 데서 괴로운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함으로써 체험이 되고, 체험을 함으로써 그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질문 제가 처음에는 큰스님의 가르침 받들어 그대로 닦아 나가다 보니 한 2년간은 참 생동감 있게 해 나갔는데 그 뒤로부터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이 왔을 때 관한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좀 바보 같고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잘못이 있는지요.

답변 아이고 참 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글쎄, 어떻게 그렇게 답답해요? 아니,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작용을 하죠? 몸만 있고 마음이 없어도 안 되고 또는 마음만 있고 몸이 없어도 아니 되고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 생사윤회라는 게 '죽는다, 산다' 이 양면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죠? 생산이 되고 멸하고 이러는 양면이 없으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거를 요렇게 해 봤는데 잘됐다, 잘되다가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도 그 되는 데서 또 안되는 게 나온다는 거를 아셔야죠.

이거 보세요. 부산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부산에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 자리는. 그러면 부산에서 되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만, 막힌 그 종점에서만 다시금 또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한 번 스르르 돌려서, 굴려서 다시 오고 가고 하는 작용을 스스로 돌려야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어! 잘되는 거를 알려 줬으니까 안 되는 것도 법이다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구나. 그러니 그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그냥 되게끔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굴릴 줄 알아야 된다! 기계도 가다가 선 것을 굴릴 줄 모르면, 운전을 못하면 차가 안 갑니다. 인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인공에 놓으라니까 그냥 놓고만 가고, 뭐 바보 같고 그렇다 그러지만 왜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부처님께서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똑똑하게 가르치셨는데 아니, 바보같이 왜 삽니까? 왜 바보같이 삽니까? 하하하….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나무도 뿌리로부터 몸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과일을 열리게 합니다. 과일들도 제 나무에서 열린 과일이라야만이, 그리고 제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라야만이 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불법이라는 거는 한 나무에 열매 하나가 열리면 만 가지 맛이 난다는 그 맛을 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정말이지 자유스럽고 똑똑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털어 버리려면…

질문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요? 며칠 전에 흥미로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벼운 기분으로 보았지만 안 좋은 말을 들어서인지 계속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털어 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불쑥 생각이 나고 조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이고 사주팔자를 본 것도 주인공의 장난이니 주인공에 되맡겨 놓으면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에 놓으려고 해도 주인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금세 다시 걱정하는 마음이 되곤 하는데 저 스스로도 자신이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털어 버리고 편안한 마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답변 어떤 분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북쪽

☞ A18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스위치 꽂아서 밥해서 그냥 먹는 걸 배우는 겁니다!

☞ A17면에서 계속

으로 삼살방이 들어서 계약은 해놓고 못 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삼살방이 들어서 집안이 잘 안되고 누가 죽는다고 그랬답니다. 또 누구는 어디로 이사를 가면 가환이 떠나질 않는다, 너는 내년에 꼭 죽을 사주팔자고 삼재가 들었으니까 꼭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미약하고 약했으면 자기가 인간이 되기까지 그토록 애를 써서 고귀한 생명을 형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흔들리고 자기로 살지 못하고선 남의 말에 따라서 그냥 휘휘 돌아가야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노예지 자기 스스로 사는 참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우환을 면치 못하고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끄달리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안은 가난하고 항상 오락가락 융합이 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척은 친척대로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거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어 놓은 것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녹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가 제가끔들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혼자 왔다 혼자 가는데 서까래 공덕으로서 자기의 뿌리이자 씨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그 인연을 어떻게 녹여야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녹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기복으로 나가지 마라. 바깥에서 그 많은 이름을 찾지 마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름 없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엄마로도 이름이 쓰여지고 형님으로도 쓰여지고, 때에 따라서는 며느리로도 쓰여지고 딸로도 쓰여지고, 또 아내로도 쓰여지고 동생으로도 쓰여지고 누이로도 쓰여지고 갖은 각색으로 이름이 쓰여지는데, 어찌 같은 한 이름만으로 이루종차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미륵보살이다, 용왕이다, 조왕이다, 신장이다, 이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 이름이 다 나가는 것을 어찌 그 이름을 일일이 이루종차 부르면서 타의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생활 불교이면서 생활의 진리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 삶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계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실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 놨는지 이름을 지어 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과학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바로 마음에서 계발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써 생활을 융통성 있게, 자유스럽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무루와 유루를 한데 합친, 바로 으뜸가는 과학적인 우리 살림살이일 겁니다. 그런 과학의 삶을 어떻게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야 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없는 숫자의 진실

질문 큰스님 법문 중에 "무슨 육근(六根)이 어쩌니, 육진(六塵)이 어쩌니, 육식(六識)이 어쩌니, 십팔계(十八界)가 어떠니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와짝 붙으면 불이 들어올 뿐이죠."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불법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 법문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의 자리에서 숫자 아닌 숫자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저는 평생 백지의 뜻을 모른 체 문자와 숫자에 빠져서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별된 문자와 숫자에서 벗어나 백지의 뜻을 알고 제 삶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도록 숫자 없는 숫자의 진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대(四大)에 대해서 말입니다, 색(色)은 사대라고 하고 수상행식(受想行識)은 바로 정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 내용과, 수상행식 그 자체가 사대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 몸과 마음은 어디에 또 상대가 있느냐는 얘기죠.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이나 의식 자체, 여섯 가지가 거기에 대두되는 거죠. 요거를 말씀해 놓고 내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거기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이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대두가 되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육식(六識)이라고 하는, 결국은 시각적이나 청각적이나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자체 여섯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 얘길 들어 보시렵니까. 그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개수가 없는 개수를 한번…, 숫자 없는 숫자요. "하나" 하면 몸과, "몸"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라고 치면 육근(六根), "둘" 이럽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대(四大)의 그 물질과 사람의 마음이니깐요. "하나, 둘" 하면 이 하나는 과거로 벌써 돌아갔습니다, 예? "하나" 하는 게 벌써 이 몸과 마음은 벌써 과거로 돌아가서, 즉 말하자면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육근의. 안 그럴까요?

그래서 "둘" 할 때 육근으로 와서, 벌써 이 하나는 여기 포함이 되니까 하나는 없어지고 이게 하나가 (오른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차례로 잡아 보이시고)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하는 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절대성으로 들어오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육진(六塵)이라고도 하고 육경(六境)이라고도 합니다만 육진으로 다시 들면은 그냥 셋이 됩니다. 그런데 둘이 또 없어집니다. 둘이라는 언어가 없어지면서 셋으로 갑니다. 셋으로 가는데 이 셋은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아셔야 납득이 돼서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납니다. 육식(六識), 육식으로써 이것을 다시금 혼합을 한다면 십팔계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데 합쳐서 십팔계라고 했는데 십팔계는 무엇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십(十)은 언제나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팔(八)은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친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다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요. 불성이라는 그 자체가, 불(佛)이라는 자체가. 그것은 항상 움죽거리지 않기 때문에 십팔(十八) 하면 벌써 십구(十九)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언제나 거기 우뚝 서는 거죠. 그래서 사무 사유가,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팔로서 팔법륜(八法輪)으로서 (양손 주먹을 바깥쪽으로 굴려 보이시며)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생활입니다. 십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응용하는 이 중용은 바로 팔이죠. 이걸 그냥 납득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어서 그냥 내 의견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바로 벗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 없는 하나가 그냥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하나라는 것도 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마음입니다. 대략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비유하건대 만약에 몸과 마음이 솥이라면 바로 거기에는 쌀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또 한번 표현해 보죠. 그런데 쌀을 씻어서 솥에 넣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불을 올립니다. 그러면 요것이 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육식(六識)의 깊은 속에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굴러 나와야 밥을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 넣고 이거니 저거니 하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꽂아서 밥을 다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이니 간화선이니 하는 것도 그게 둘이 아니건만 불 질러서 밥을 하는 과정과 딱 먹는 거와 혼합이 돼서 하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싸우지 말고. 과정을 다 해서 솥에 넣고 스위치 딱 누르면은 밥이 되는 그런 거하고 또 갖다 씻어 넣는 과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밥을 해서 먹는다, 불이다 그런다면 우리가 솥에 그냥 하나 갖다 넣으니깐 또 하나 줄어들고, 하나 갖다 넣으니까 또 하나 줄어들고 다 넣고는 불 꽂으니깐 다 먹는다. 이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스위치 꽂아서 밥해서 그냥 먹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넣었으면, 한 솥 넣었으면 그냥 불 꽂아서 해 먹는 거를 우리가 배우자. 우린 시기가 있고 바쁘다. 우리 몸뚱이가 살아 있을 때에 이 뜻을 모른다면 천년만년 가도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고(苦)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 넣어도 하나요, 하나를 또 넣어도 하나요, 그래서 한 솥을 밥을 해 놓고 먹어도 그 하나마저도 없더라. 모두 나눠서 먹으니까 말입니다. 그 하나마저도 없더라. 그리고 또 갖다 넣은 것도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불만이, 불만이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다' 할 수가 없이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요, 그 한마음마저도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거 될 때에 너라고 할 수도 없고, 쌀이 될 때 너라고 할 수도 없고, 불이 될 때 너라고 할 수도 없고, 솥이 될 때 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음의 찰나 생활이 그대로 역력히 돌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대로 자유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했습니다. 그러면 계향, 정향 할 때에 벌써 이건 하나 없어집니다, 자꾸. 절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절대적" 하다 보니까 상대성 원리가 원형으로 모이면서 하나가 탁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니까 참작해서 잘 들으시고요, 나를 무기력하고 무질서하게 얘기한다고 그러진 마시고요. 어떡합니까. 세상 사는 게 부처님 법이요, 그것이 진리니깐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야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열 마디 백 마디 해야 그건 쓸데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탈향까지 가서 해탈지견향, 즉 말하자면 소견으로 쓰지 않고 그때는 지혜로서의 지견으로 쓰게 된다 이겁니다. 깊은 속에서 굴러서 나와서 하나로 뭉쳐 돌아가니까. 그래서 '해탈지견향'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율을 지키려고 안 해도 그게 포함된 그런 능력의 중용이기 때문에 계(戒)를 안 지킨다 지킨다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유의 법에서만이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의 법에서나 유의 법에서나 일체 사생(四生)의 그 뜻을,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을 다 포함해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또 바로 나로 될 수 있고 그로 될 수 있어서 자유권을 그대로 상실하지 않고 자재한다 이 소립니다.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 하나고, 셋이 하나인데 또 하나가 셋이 되고, 또 하나가 아홉이 되고 아홉이 셋이 되고 이러한 요소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한번 당겨서 극치적으로, 즉 절대성으로 놔두었다가 상대성으로 옮겨 놓고, 옮겨 놨다가 또 절대성으로 오고 상대성으로 가고 이렇게 자유권을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자유자재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 한마음의 찰나 생활이 그대로 역력히 돌아가고 있으니
> 여러분이 그대로 자유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 이런 겁니다.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소형난로

사천왕 대형 난로
(고압노즐 회전분식형 소각 기능)

소형난로	폭 600㎜ × 길이 1,000㎜ × 높이 1,500㎜ × 두께 9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700~800℃
중형난로	폭 800㎜ × 길이 1,300㎜ × 높이 1,650㎜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600~700℃
대형난로	폭 1,000㎜ × 길이 2,000㎜ × 높이 2,150㎜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500 ~ 600℃
공양초집	폭 800㎜ × 길이 1,600㎜ × 높이 2,030㎜ 재질 STS 304



중형난로 / 대형난로

난로 할부판매 가능합니다



공양 초집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현불 논단

경찰권, 국가 권위의 상징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

폭력범죄 높은 곳이 경찰지구대
주취자가 지구대서 행패 부려도
문제없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가

주취자에 관대한 사회 정서 '문제'
투명하지 못한 경찰들도 반성해야

경찰권 무너지면 국가도 흔들려
法,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부패·법 집행 않는 경찰은 '무능'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곳 중 한 곳이 경찰지구대라면, 혹은 무질서범죄가 다발하는 곳 중의 한곳이 다중집회와 시위현장이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죽창과 쇠파이프로 경찰을 가격해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

이와는 반대로 몇 년 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현직 시장이 1인 시위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모습이 좋은 대조를 이루지 않는가? 또한 우리나라 시위대가 WTO총회가 열렸던 미국으로 원정시위를 갔지만 미국 경찰이 정한 '경찰선(Police Line)'을 단 한 사람, 단 한 발자국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은 과연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

경찰권은 바로서야 한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운영목표 또는 이념을 범죄통제(Crime Control)에 두기도 하여 그야말로 형사사법의 절차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여 생산성(Productiv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강조되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Conveyer Belt)모형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결과보다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 모형으로서 생산성과 효율성보다는 과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일종의 장애물경주 모형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면 민주적,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추구하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시민의 인권이 신장된 현대사회에서는 비교적 적법절차가 우선적 가치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상반된 가치 같기도 한 두 모형이 결코 갈등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한 법집행만이 법과 그 법의 집행에 대한 정당성이 담보되고 그래야 시민 또한 법을 준수하여 결국 형사사법제도 전체가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법절차에 못지않은 전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실하고 공정한 법집행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법은 확실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서 생긴 불평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풍자 아닌 풍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권이 왜 확실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무너졌다고까지 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경찰 자신들의 문제로서 과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정권에 동조하여 경찰권의 집행이 공정하고 정당하지 못해서 법을 확실하게 집행하지 못한, 즉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라는 더 큰 합목적성이 그 수단과 절차 및 방법을 압도하였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음주에 대한 너무나도 관대한 문화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경찰지구대 등에서의 주취폭력에 대한 관대함과 사법심판에서의 주취자 감경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정통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유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강호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주취자 감경에 대한 법 감정도 바뀌고 실제로 사법운용에서도 더 이상 주취가 감경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권은 국가권위의 상징이다. 국가권위가 흔들리면 국권도 흔들린다. 법은 확실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공정하게 집행될 때 그 정통성을 부여받는다. 경찰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경찰은 더 문제지만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경찰도 무능한 경찰이다. 경찰권이 무너지면 국가권위는 물론이고 국가권력도 무너진다. 더 이상 경찰권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社說

종헌 위상 걸맞은 대탕평 고민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대탕평'을 중심으로 한 종단·공동체 화합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앞서 33·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추진했던 미완의 과제 '부처님오신날 대사면'을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한다. 지난해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와 자승 스님의 대사면 추진이 중앙종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은 종헌종법 절차 검토와 대중공의 결집에 미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종헌종법특위는 최종적으로 부칙을 통해 '멸빈자 사면 불가' 내용을 담은 종헌 제128조를 제한하는 종헌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본회의서는 종헌을 부칙으로 1회에 한해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종정 스님 교시만으로 종헌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문제는 종헌 개정을 통해 제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할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멸빈의 사유가 불경죄·4바라이죄 등이기 때문에 멸빈자에 대한 사면 허용이 승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제128조 단서조항을 수정하는 안도 매끄럽진 않다. 종헌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사면 동의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종정 특권인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현재 조계종단이 바람직한 대탕평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헌종법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과거 개정안으로는 종헌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대중공의를 모아 종헌 위상에 걸맞은 대탕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 4.3 추모 영산재 환영한다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제주 4.3사건을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불교계가 나서 영산재를 봉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추념일 즈음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들도 게재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한다. 이 같은 계획들은 제주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1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면서 가시화 됐다.

유족회와 범국민위는 불교 차원의 추모·위령행사, 특별법 제정에 도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특별법 제정에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광화문서 진행되는 제주 4.3사건 추모행사에서 유족회 등이 요청한 위령·천도재를 영산재로 확대해 봉행하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언도 실무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조계종과 불교계가 앞서서 제주 4.3사건 추모 기념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4.3사건 당시 관음사 등 36개 사찰이 전소됐고, 16명의 스님이 총살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됐다. 엄혹했던 시절 국가 권력의 폭력은 죄없는 양민은 물론 출가 사문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영산재는 석가여래의 영취산 설법 현장을 현세에 재현해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 대표 의례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영산재를 봉행하겠다는 것은 당시 희생된 모든 고혼들을 천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화해·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아직도 제주도는 당시 갈등이 남아있는 곳이다. 70주기를 맞아 펼쳐질 영산회상의 법문은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특별기고

미증유의 미소

선진 스님 보광선원 한주

새로운 한해가 시작 되었다. 씨앗도 뿌리지 않고 거둘 하늘부터 쳐다본다. 풍요와 빈곤은 작년 심은 선근(善根)만이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인과마저 초월한 세계가 있다. 무문관(無門關)이다. 화두에 불이 붙으면 인과도 윤회도 태워버리고 오직 '일념돈탕진(一念頓蕩盡)'이다. 백겁에 찌들어 있어도 몰록 깨치는 순간에는 성냥개비 하나가 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 하더이다. 벌써 동안거(冬安居)도 반철이 다가온다. 출가사문(出家沙門)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비구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와 묘유(妙有)가 숨어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요즘 무문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번 들어가면 3개월 또는 6개월 한숨 크게 쉬면 6년을 나오질 않고 생활한다. 2평도 채 안되는 공간에서 삼라만상을 삼키고 토해낸다. 때론 수미산(須彌山)에 올랐다가 항하사(恒河沙)에 매몰되기도 한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 보겠는가! 철저히 한 뜻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간화선(看話禪)이 주는 최고의 배려이자 선물이다. 그래서 무문관은 간화선의 보림굴(寶林窟)이요, 간화선의 본가이다. 이곳에서 방선죽비를 찾고 걸망을 멘다는 것은 납자가 아니다.

진정 무문관은 말과 소리와 의식마저 끊어진 곳이다. 앞산에 공기가 차가우면 새벽을 알린다. 햇살이 남중에 걸리면 점심공양 시간이다. 문밖에 짖어대던 새들마저 조용해지고 상경이 깊어지면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촌각과 촌음을 태우며 숨 쉴 시간마저 부족하다. 이곳은 결재와 해제가 없다. 오직 결사만 있을 뿐이다. 정각(正覺)을 얻어 아뇩다라를 만나면 진정 해제이다.

무문관!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인가. 얼마나 체득해 보고 싶은 곳인가. 누구나 초발심 때에는 수미산도 뛰어 넘는다고 했는데…. 출가 장부라면 한번쯤 도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기가 모자랐는지 정작 문 앞에도 가보질 못했다. 업산(業山)에 살다보니 네 번의 강산이 지나갔다. 윤회에 들기 전에 꼭 한번 가볼 터이다.

도반 스님인 보광선원 주지 황운 스님이 얼마 전 9년 결사를 회향했다. 시절 인연을 만나기 위해 소림굴에서 9년을 면벽하신 초조의 성사(聖師)처럼 힘든 시간을 감인대(堪忍待)하며 3천일기도를 회향했다. 주지 소임도 힘들 터인데 한 치의 타성도 불허하며 만고의 진리를 위해 천일의 가피를 찾아 뚜벅 뚜벅 25시의 삶을 걸어온 것이다.

간밤에는 초발심 때 연비한 지리산 도반 스님이 전화가 왔다. 미얀마를 순례하며 한철 정진하자고 했는데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얼마나 사무치도록 부처님께 귀의했으면 두 손가락을 태울 수 있을까. 그 열정과 숭고함을 나는 존경한다.

이 시대 두타제일존자들이여! 정녕 그대들은 매일같이 마장을 만나고 유나를 만나고 선지식을 만났소이다. 죽비소리에 수백 번 정각을 이룬 소감이 어떻소이까. 허공계의 유정무정들도 나유타(那由他, 1000억)만큼 기쁘할 것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쳐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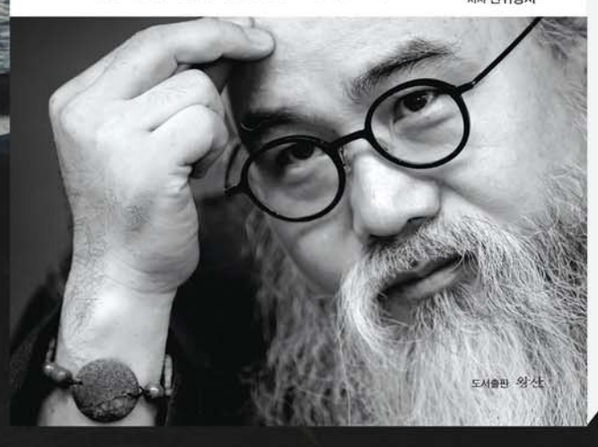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깨달음 종교

팔만대장경을 6강사상으로 압축하다.
BTN불교TV의 각설하고를 이 책에 담다.
팔만사천 법의 덩어리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다.

저자 진귀장자



도서출판 왕산

제1강 사성제 제2강 법화사상
제3강 반야사상 제4강 유식사상
제5강 화쟁사상 제6강 화엄사상

※2018년 1월부터 전국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종교는?
청소년들의 숨어 있는 재능(과학, 문학, 예술, 스포츠 등등)과
무한한 가능성인 창의성(깨달음/본각)을 끄집어 내게 하는 책으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울 일생일대의 귀연이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 종교〉의 책을 읽다가 어려운 문구 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 스님들께 문의하세요!
2018. 1. 2. 진귀장자 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 문 의 : 1899-9532



청소년전법제일 부루나 존자

그대는 자비보살

이학송 前 교법사(59 · 생명의 숲 국민운동 전문위원)

청소년기 불연으로 '부루나' 서원
중2때 꿈에서 관세음보살 만나
소림사 불교학생회 활동하며
불교학과 군법사 교법사 서원

군포교 · 청소년 포교 한 길
군법사 시절 사비로 법회 열어
교법사 시절 청소년 포교 진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의 십대제자로 불리는 부루나 존자는 설법의 재주가 뛰어나 '전법제일'이 되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재주가 뛰어나' 이전에 '원력이 깊어서'가 먼저였음을 알 수 있다. 부루나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전법의 원력이 가장 깊었기에 전법제일이 된 것이다. 그 만큼 '전법'이란 단단한 원력에서 출발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어느 시대든 '부루나'는 있었다. 그랬기에 우리는 지금 부처님 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법은 미래를 위한 일이다. 그 '미래'를 위해 단단한 원력을 품은 부루나가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 그의 전법지는 미답의 '청소년.' 군법사와 교법사로 활동하며 오랜 세월 교직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불심을 심고자 진력해온 이학송 前 교법사다.

청소년포교 프로그램 달인

이학송, 그의 이력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이력은 한 가지에 달린 것들이다. 다름 아닌 '전법'이다. 현재 현역에서 물러난 그는 의정부 광동중 · 고등학교와 부산 장안중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았다. 교사가 되기 전에는 7년여 동안 군법사로 전법에 힘썼고, 교사가 되면서부터는 교법사로 청소년 포교의 길을 걸었다. 그는 군법사로 있는 동안 사비를 털어 법회를 열기도 했다. 하루에 두세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차도 많지 않고 길도 좋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그는 즐거웠다. 부루나 존자가 그랬듯이 미답의 불모지를 찾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 "부루나 존자 시절에 비하면 '일'도 아니죠."

군법사의 이력은 교법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는 아직 부처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법당으로 부르고 싶었다. 부처님 가까이 살게 하고 싶었다.

"청소년 시절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수성이 한창이고 아직 자아와 인성이 확실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부처님 가까이 부르는 일은 그야말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원력을 성취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많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2000년,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이하, 파라미타)에서 청소년문화연구소장을 맡게 된다. 그는 그때 수많은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일반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불자'와 '비불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요. 청소년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모든 이들의 삶에 부처님 말씀이 맑고 향기롭게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를 내세우지 않고 학생들을 불교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을 부처님 가까이로 부르고 싶었어요. 학교 법당을 그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그들을 숨 쉬게 하고 싶었어요."

그가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불교신행프로그램'은 수없이 많다. △한마음으로 하는 독경대회 △염주(합장주) 만들기 한마당 △불국토 마을 설계도 공모전 △108배의 생활화 △나의 마니또 보살 찾기 △진리의 탑 쌓기 △효도를 위한 신행 실천 기도 △북한 동포돕기 각종 프로그램 △은혜도(인연도) 그리기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중 '108배의 생활화'는 그가 개발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가 의정부 광동여고(현 광동고)의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광동여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108배를 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학생, 신심을 다지기 위해 시작한 학생, 교법사가 만든 단주선물을 받으려고 시작한 학생, 그 시작의 동기는 제 각각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108배'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무엇보다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모인다는 것이 '의미'였다. 지금도 이학송의 '108배'는 여러 교법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 시작하든 108배를 하다보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있기 마련이죠.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도 한 번 쯤은 고요한 곳을 지나갈 때가 오죠. 그렇게 숙연한 시간을 경험하다보면 부처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부처님 만나는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는 2003년에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 〈청소년 신행프로그램모음집〉을 발간했다. 그렇게 그는 30여 년 간 오직 청소년을 위한 포교에 진력했다. 교육불사야말로 크고 시급한 불사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루나 존자가 불법의 불모지를 찾아 나섰듯 그는 전법의 시선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기로 서원한 것이다. 그의 원력불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관세음보살을 만나 다시 살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 씨는 어려서부터 불교의 밭에서 자랐다. 본가는 물론 가까운 일가 모두가 부처님의 울타리를 둘렀다. 친척 중엔 절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절 마당에 익숙했고, 법당 좌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삼촌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고, 절 마당에서 놀다가 큰스님들을 만나기도 했다. 친척의 사찰은 개인 사찰이었지만 사찰엔 큰절 스님들의 왕래가 많았다.

이 씨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긴다. 연탄가스 중독이었다. 지금은 생소한 일이지만 그 시절엔 흔한 일이었다. 누나, 동생과 함께 잠을 자던 이 씨는 꿈을 꾼다. 하얀 법의(法衣)의 관세음보살이 눈앞에 나타났다. 평소 그는 관세음보살을 알고 있었다. 이름은 잘 몰랐지만 늘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너무나 생생했다. 어떤 존재인지도 이 씨는 알고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글썽거리며 말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말류선의 폐단–능엄주 유행

B5
문화
최우성 사진집
'사진으로 본 108산사'

B6
학술 · 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회 YFM,
1월 9일 국박에 기증

“교육 불사가 곧 불교 ‘미래’”

‘이학송 위원’ B1면에서 계속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말없이 이 씨를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이 씨는 두 번 세 번 보살님께 서원했다. 그는 그렇게 간절히 용서를 빌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보니 집안엔 연탄가스가 가득했다. 그는 이미 연탄가스로 힘겨운 상태였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있음을. 그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챙겨서 누나와 동생을 깨웠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깨워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보았던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꿈속에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 대목이 제 삶의 죽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날 이후로 보살님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고 있죠.”

그는 그 날 이후로 불교에 한 발 더 다가간다. 불교에 익숙했던 그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귀의’였다. 불교는 이제 그의 ‘종교’였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슴 속에 남은 보살의 모습. 그것이 이학송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었다.



2007년 광동중학교 교장 재직 시절 61회 졸업생들과 함께.



장안중학교 교장 재직 때 학생들과 야외수업 장면.



양주 흥국사(육군 60여단) 법회(앞줄 맨 우측 이학송)

한 길 걷게 한 불교학생회

이 씨는 그로부터 얼마 후 부산 소림사에서 불교학생회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의 누나가 소림사 청년부 회원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선배들과 함께 바로 소림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한다.

“다니던 학교와 절의 거리가 제법 멀었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절에 가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다. 이 씨를 평생 ‘부루나’로 살게 한 중요한 계기는 바로 불교학생회였다. 꿈속에서 본 관세음보살로 인해 다시 살게 된 이 씨였다. 절에 가면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착하게 살겠다는 서원을 구체화하게 된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스님과 지도교사로부터 법문을 들었는데, 그 설법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그는 그때 동국대 불교학과를 가기로 서원한다. 그리고 하루는 군법사가 법문을 하는데 그 모습이 또한 그를 사로잡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는 군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역경원 연구원을 거쳐 1982년 12월 군법사 임용을 위해 속리산 법주사와 수원 용주사에서 5개월 동안 수련하고 광주훈련소에서 군종장교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1983년 8월 강원도 철원군 3사단 사령부 백골호국사 주지법사로 임명된다. 최전방에서 교육활동과 법회활동을 이어갔고, 1986년 안양시 수도군단 충의사 주지법사 시절엔 서해안 일대, 수원, 김포 등 전방 지역을 돌며 법회와 교육활동을 이어갔다.

그렇게 7년 동안의 군법사 활동을 끝낸 그는 교단에 서게 된다.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 인식

‘108배의 생활화’ 등 수많은
‘청소년 불교신행프로그램’ 개발
“청소년기 경험 인성형성에 중요”
퇴임 후 학교 숲 짓기 봉사
‘불교 식물원’ 짓기 남은 원력

이렇듯 그를 불교학과로 이끌고 군법사와 교법사의 길로 이끈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불교’였다. 꿈속에 나타나 목숨을 건져준 관세음보살, 소림사 불교학생회, 매주 만났던 스님과 지도교사 그리고 군법사. 이 모든 경험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다. 이 씨의 청소년 포교 원력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청소년기에서 싹튼 것이다.

가장 큰 원력…종립학교, 불교식물원

2013년, 2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친 이 씨는 현재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학교숲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봉사활동 중이다. 그가 재직 중에 이미 매진해 왔던 일이다.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짓는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청소년 포교에 진력하면서 그는 또 하나의 커다란 원력을 품게 됐다. 청소년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도 분명 필요한 불사이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것은 ‘더 많은 종립학교 설립’이었다. 교육은 ‘미래’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불사를 생각했다. 앞서 말했듯 청소년 시절에 보고 듣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다. 인생을 그리는 일이다. 그는 그 중요한 시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심고 싶었다.

그는 퇴임 후, 그와 관련된 일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 씨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그 일에 당연히 관심을 보여야 할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많이 아쉬운 일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긴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이죠. 제가 교직생활을 통해 느낀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꼭 종교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더라도 교육은 중요한 일입니다. 기왕이면 부처님 그늘에 세워진 학교가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타종교에 비해 불교 종립학교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도 타종교는 학원 인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쉬운 일이지만 원력을 접었다고 했다. 이 씨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종립학교를 늘리는 일 대신 많은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자연은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부처님 대신 자연을 심는 것이다. 꽃과 나무를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비와 개구리를 보면서 청소년기를 보낸다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 동안 그는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학교숲특별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학교 1천여 곳에 숲을 만들었다. 그가 오랫동안 재직했던 광동고등학교에는 룸비니동산이 있다. 이 씨가 재직 중에 만든 숲 한 쪽에 이 씨가 붙인 이름이다. 이 씨가 생각하는 전법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불교를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심는 것이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룸비니 동산’에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숲을 부처님 대신으로 생각한 이유는 불교가 숲의 종교라는 생각에서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보리수 아래서 수행하며 깨닫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하셨습니다. 달이 밝은 보름날에는 숲에서 설법을 하셨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늘 숲에서 법회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시작은 룸비니 동산이고, 보리수 아래이고 녹야원입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 식물원’ 짓기 운동에 나섰다. 기왕이면 불교라는 테마에서 시작하는 숲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전에 나오는 식물이나 불교문화, 사상과 관련된 식물을 한 곳에 모은 ‘불교식물원’이다. 자연과 환경이라는 테마에도 맞을뿐더러 불교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불교식물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부처님 당시 부루나 존자는 외도의 주먹질과 흉기를 기꺼이 받으며 전법의 길을 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많은 부루나가 그 법을 지켜왔다. 탑을 세우고, 경전을 찍고, 가람을 지으며 지키고 넓혀왔다. 시절마다 불법이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이름 큰 조사와 문중의 업적만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 시절의 부루나와 이후 수많은 부루나처럼 단단한 원력의 의지를 놓지 않는 이들이 곳곳에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우리 가까이 부루나가 있기에 이 시절에도 불법은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만약 한 생이 돌고 또 도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부루나 존자’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학송 위원은?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를 수료했다. 동국역경원 편집실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1983년~1989까지 군법사로 복무했다. 1992년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교법사)로 시작하여 교감과 교장을 지냈고, 2011년 부산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소년문화연구소장, (사)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통일바루(조계종 민추본) 회장과 생명의 숲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교육감상(2005), 보건복지부장관상(2009), 조계종 총무원장상(2000), 포교대상 원력상(2000), 국무총리 표창(2014) 등 다수 수상했다.





송말·원대 禪… 밀교적으로 변색·변질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② 말류선의 폐단–능엄주 유행



그림 · 강병호

남송 말, 원나라 선불교는 선종오가(五家)의 말류(末流)였다. 이 시기 선불교는 주술적인 티벳 라마교 등 갖가지 이물질이 유입되어 '밀교적인 선(禪)'으로 변색 · 변질되었다. 음식으로 말하면 잡탕 · 짬뽕 · 비빔밥이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조계 혜능에서 발원한 조원일적수(曹源一滴水, 한 방울의 물)는 전례가 없이 오염되어 탁류(濁流)가 되어 있었다. 상류인 당대 조사선과 송대 공안 · 간화선은 만가(輓歌)를 합창해야만 했다. 그 혼탁한 말류선(末流禪)이 고려 후기 원 지배기에 대거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조선시대는 물론, 근현대까지도 오늘날 한국의 선불교는 남송 말-원대 말류선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았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상적으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남송 말-원나라 선불교는 사상적 · 정신적으로 쇠락한 선이었다. 이 시기 선원총림의 방장(주지)들은 총림에 앉아 있는 날이 드물었다. 부처의 혜명을 잇고 불법을 수호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날이면 날마다 정치인들과 분주하게 왕래했다. 그러나 기실(其實) 그들의 행동은 양어가추(揚於家醜, 허물을 드러내어 禪門을 격하시킴)에 지나지 않았고, 여속교통(與俗交通, 세상 사람들과 사귐)으로써 부처님의 혜명을 빠르게 단축시키고 있었다.

어쩌다 방장이 귀사(歸寺)하여 납자들이 문법(聞法)과 청익(請益, 가르침)을 요청하면, 방장은 "시간이 없으니 가능한 한 짧게 질문하라"고 했다. 우선 정치적으로 분망하다 보니 정안(正眼)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축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납자들의 질문에 답할 능력도 상실했다. 이들 대부분은 임제종 계통의 방장들이었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도교의 도사들처럼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른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남송 후기에 중국 천동산 천동사에 가서 약 3년 반 동안 좌선 수행을 했던 에이헤이지(永平寺)의 선승 도겐(道元, 1200-1253)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스승인 천동여정 선사에게 "총림의 주지(장로)들이 왜 머리를 기릅니까?"라고 묻자, 여정 선사는 "모두 짐승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있다.

남송 후기-원대(元代) 선종사원(총림)은 티벳 밀교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주술적인 선종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 시기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표방하고 있는 선원총림에서 진언 · 다라니 독송이 성행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독송된 것은 최장편 다라니인 '능엄주'였다.

특히 하안거 때에는 선원총림에 능엄주 독송을 위한 능엄단(楞嚴壇)을 차려 놓고 하루 세 번 능엄주를 독송했다. 하안거 90일 동안 척사(斥邪), 즉 마장(魔障)이 없이 안거를 무사히 마칠 것을 기원하기 위한 것("楞嚴會乃祈保安居." 〈칙수백장청규〉, '능엄회')으로, 선원의 모든 대중들이 참석했다. 이것을 '능엄회(楞嚴會)'라고 했는데, 소임 가운데 '능엄두(楞嚴頭)'는 능엄주를 선창하면서 능엄회와 능엄단을 관리하는 소임이었다.

능엄단은 하안거 2일 전인 4월 13일에 설치하여 해제 2일 전인 7월 13일에 회향해서 마치는데, 아침 공양 후에는 대중 모두가 대웅전에 마련된 능엄단으로 가서 능엄두의 선창으로 능엄주를 독송한다. 만일 아침 공양 후에 급한 일이 있는 날에는 점심 공양 후인 오시(午時, 12시 경)에 모여 독송한다. 능엄주는 전문 427구로 되어 있는데, 418구까지는 제불과 신들의 명호이며, 끝 8구가 정주(正呪)로 이것을 '8구 다라니'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른바 "살불살조(殺佛殺祖)", 즉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고 강조하는 선불교, "번뇌 망상을 단칼에 잘라 두 조각 내버린다[一刀兩斷]". "단번에 모두 깨닫고 닦아 버린다[頓悟頓修]". 그리고 '불립문자'라고 하여 '경전도 휴지에 불과하다'고 대성일갈(大聲一喝)하면서, 하안거 90일 동안 하루 세 번 밀교의 다라니인 '능엄주'를 독송한다는 것은 선불교의 이념 · 철학 · 사상 · 정신과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선불교는 모든 현상을 공(空) · 공성(空性)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상도 없는 '마(魔)'를 물리치기 위하여 능엄주를 독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선의 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것이고 근기가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조사선에서는 불상도 필요 없다고 모시지 않았는데, 원대에 이르러 능엄주를 독송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첫째 반야지혜에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선의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魔)' '마장(魔障)'이란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것이 아니다. 마(魔)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마(번뇌장)'와 '사량분별심[所知障]이 곧 '마'이다. 성성하게 화두를 참구하면 저절로 없어질 마를 쫓아버리겠다고 능엄주를 독송하고 있었으니 실망스러운 일이다. 금강석과 같은 반야지혜는 완전히 사장(死藏)되어 단 10%도 가동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고도 이들이 정녕 격외의 소식을 깨닫겠다고 나선 기개가 하늘을 찌른다는 출격(出格) 대장부인가?

한국禪, 송말·원대 선불교 답습
선불교에서 능엄주 독송은 잘못

당대(唐代)는 물론 북송 때까지도 선원에서는 능엄주 같은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북송 말인 1103년에 편찬된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능엄경〉이나 〈능엄주〉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 그 어디에도 능엄주를 독송하라'는 말이나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선종사원에서 능엄주는 전혀 중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적어도 남송 중기까지도 능엄주는 독송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170년 뒤인 1274년 즉 남송이 망하기 5년 전에 편찬된 〈총림교정청규총요(叢林校定淸規總要)〉(함순청규라고도 함)에서 처음으로 하안거 결제 때 능엄주를 독송하는 능엄회에 대한 기사(記事)가 나오고 있다. 이어 원나라 초기인 1311년(원의 건국은 1264년임)에 편찬된 일함의 〈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 그리고 원 순제 지원 4년(고려 충숙왕 7년)인 1338년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능엄주와 능엄회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칙수백장청규〉 절림장에 안거 때는 능엄단을 차려 놓고 능엄주를 독송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 등으로 선원에서 능엄주를 독송하게 된 것인데, 밀교의 능엄주를 선원에서 독송하고 있었으니 칼날 같은 지혜가 번뜩이던 선의 정신은 사실상 여기서 죽었다고 해도 하등에 원통할 것도 없다.

밀교나 기타 불교종파에서 능엄주를 독송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경전도 휴지에 불과하다'고 '마루가 꺼질 정도'로 큰 소리를 치는 선사들이 천신들의 이름이 적지 않게 나열되어 있는 능엄주를 독송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종명(宗名)이 '밀교선종' 또는 '다라니선종'이라면 비판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당 중기 백장회해가 처음으로 선원총림을 만들 때는, 그리고 당 말까지도 선종사원에서는 불전은 물론 불상도 모시지 않았다. 기도, 염불, 불공 등은 일체 하지 않았다. 선원총림은 그 목적이 깨달은 부처를 만드는 곳이지 기도, 불공 등 기복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송 때까지도 살불살조의 조사선 정신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남송 후기-원대에 와서는 선의 정신을 망각하고 능엄주 등 진언밀교의 다라니를 독송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사실 중국 선종은 남송-원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정치적인 요인으로 그 정신이 퇴색하여 명청시대에는 무자화두의 간화선은 사라지고 염불자수(念佛者誰,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의 염불선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선원에서도 능엄주를 독송했다. 이것은 원나라 선불교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인데, 아무리 '원 지배 시기'라고 해도 이런 것까지 답습할 필요가 있는가? 그보다는 정견과 정안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기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능엄주 독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확철대오, 살불살조를 외치는 선원총림에서 화두삼매가 잘 되지 않아서 능엄주를 외우고, 마(魔, 마장)를 물리치기 위해서 능엄주를 외운다는 것은 간화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수행자라면 당연히 화두를 들어서 삼매로 들어가야 하고, 마(魔)나 마장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선원에서 무슨 경전이든 독송해야 한다면 당연히 〈유마경〉이나 반야지혜의 경전인 〈금강경〉, 또는 〈화엄경〉 등 사상적으로 선종의 바탕이 된 경전을 우선적으로 독송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육조단경〉, 〈임제록〉, 〈조주록〉같은 선사들의 어록을 독송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야지혜를 갖출 수 있고, 정견과 정안을 갖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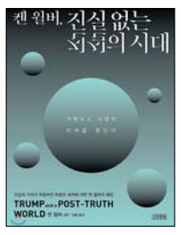
〈금강경〉과 〈유마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은 중국 선불교의 사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경전이다. 특히 〈유마경〉은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생사즉열반'이라는 명구 하나만으로도 '생사와 번뇌'란 염오(厭惡)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뒤집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설파한 경전이다. 또한 '유마의 침묵(沈默)'에서는 '진리는 무언(無言)'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하여, 보살정신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不二]을 보여준 경전이다.

이런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전들은 '불립문자'라고 하면서 독송하지도 않고 밀교의 다라니인 능엄주를 독송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능엄주 독송은 밀교수행법으로는 맞을지는 몰라도, 공안과 화두를 참구하는 선불교에서는 큰 착각이고 오류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 안목으로 어찌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참선수행에서 '마(魔)'란 곧 선병(禪病)이다. 선병은 정견(正見)과 정안(正眼) 등 안목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정신적 오판 ·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환영(幻影) · 환청(幻聽) · 환시(幻視) 등 착시현상도 선병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정견이 확립되지 못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생긴다. 정도(正道)를 모르고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종에서 반야지혜를 중시한 것은 이런 선병과 마(魔)를 대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야지혜에 투철하면 나타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분주하게 정신을 괴롭히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를 더 곁들인다면, 깨달으면 어떤 신통력 같은 것을 얻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또한 큰 착각이다. 그것도 선병, 마(魔)의 한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 수행자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병(신통술, 신통력)에 걸려 있다고 보이는데, 만일 이런 기대를 갖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즉 삿된 선이다. 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면 선병이나 마(魔)란 일어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魔)'란 마음이 허황되면, 빈틈이 생기면 마가 침입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체유심조,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졌듯 마도 오로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이라는 것을 체득할 때 본분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진실없는 진실의 시대 켄 윌버 지음/김훈 옮김/김영사 펴냄/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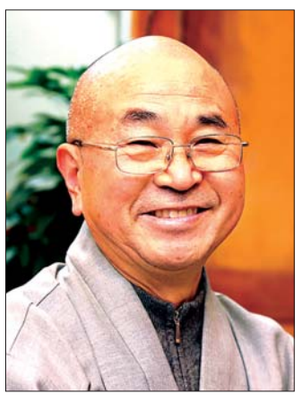
세계적인 '통합사상가' 켄 윌버가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에 퍼진 '탈진실(post-truth)'과 '가짜뉴스' 시대의 혼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켄 윌버는 인간의 의식과 신체 수준이 특정한 패턴과 발달 단계를 따른다고 보고, 각 단계를 상징적인 색(color)으로 설명한다. 가장 앞선 단계의 수준은 '녹색(green)'이며 '포용성'과 '다양성' '상대적 진리' 등을 특성으로 지닌다. 그러나 이 수준이 자기반성과 교정을 중단하고 변질되면, 우월성과 위계주의를 가지는 '붕괴된 녹색'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 책은 '탈진실 시대'에 대해 켄 윌버가 던지는 새로운 물음이자 해법이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가운데 하나로 추앙받는 켄 윌버의 통합이론이 정치 ·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볼 수 있다.

見性과 成佛은 결국 마음 이야기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

혜담 지음/불광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삶의 회의를 씻고 확철대오 하겠다는 원력으로 출가 수행을 시작한 혜담 스님<사진>은 은사인 광덕 스님의 지도로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수행'과도 만나고, 반야사상의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학문적 시각으로 불교 교리에 접근하는 학승의 한계를 절감하고, 귀국 후에는 더욱 조사어록에 전일해 화두참구에 몰두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조사들의 화두가 자신의 것이 되는 시간을 보내며 달마와 혜능의 선사상을 체득해 갔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마음을 다잡지 못해 갈등이 밀려오는 순간도 있었고, 깨달음이 아닌 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수행에 몰두한 나머지 뇌혈관이 터져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도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중생 제도 실천을 위해 전법교화에 매진하고, 저술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이처럼 혜담 스님이 수행자로 걸어온 지난 반세기는 실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삶 그 자체였다.

혜담 스님은 "이제 조금 눈이 열린 것 같다"라고 담담히 말한다. 역대 조사들과 은사 광덕 스님이 말한 '번뇌가 다 한 것이 부처가 아니라, 번뇌가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부처'임을 여실히 관(觀)한 스님의 고백이다.

이 책은 깨친 선승의 '할(喝)'이라기보다 묵묵히 걸어온 수행과정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회고록이자, 선승으로서 조사어록을 정리한 지침서이다.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되는 선(禪)은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적 성격을 지닌 불교 사상이다. 중국불교는 7~8세기 사이에 그 철학의 일단을 매듭짓고 새로운 불교사상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중국적 불교의 색채를 발하며 선불교를 낳았다. 따라서 선불교는 중국불교의 탄생을 의미 한다. 혜담 스님은 이것을 '달마의 심종교'의 탄생이라고 이름 붙였다. '달마의 심종교'인 선은 예기치 않게도 중국을 넘어 국제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불교서 파생했지만 새로운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선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님은 이러한 관점서 볼 때 "선은 이제 불교의 일파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인류의 지적 유산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이처럼 파격적 주장을 내세우는 근거는 조사의 사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종 이전의 불교에서는 아라한의 깨달음서 부처를 찾았다면, 선종은 오직 마음에서 부처를 찾는 데 결을 달리한다. 초기불교와는 다른 달마 대사의 심종교 기본 골격은 이입(二入)과 사행(四行)서 보다 분명해진다. 이입이란 이입(理入)

"선불교는 달마의 심종교와 대면하는 것"

선은 불교 일파가 아닌 인류의 지적 유산

과 행입(行入)이다. 본래 부처라는 이법(理法)과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한 행위로서의 수행법을 말한다. 사행은 '본래로 돌아가기 위한 네 가지 실천'을 가리킨다. 첫째는 보원행(報怨行)으로 수행하면서 겪는 장애나 역경은 전생에 지은 과보임을 알고, 괴로움을 만나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 수행이다. 둘째는 수연행(隨緣行)으로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고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는 진실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다. 셋째는 무소구행(無所求行)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일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이다. 넷째는 칭법행(稱法行)으로 자기 자신이 본래 청정하다는 도리를 깨닫는 수행이다. 초조 달마의 수행법에는 사념처(四念處) 등에서 말하는 부정관(不淨觀)이 없다. 본래 자성이 불성이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선종 계통의 선사들은 모두 달마 대사의 심종교인 이입사행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달마 대사의 심종교는 육조혜능에 의해 선불교라는 옷을 입고 인도불교와는 결이 다른 중국불교로 정통성을 확보했다. 선종은 달마 대사가 심종교로 시작하고 혜능 대사가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책서 혜담 스님은 선불교와 기존 불교의 우위를 논하려 하거나 조사들의 뛰어남만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고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통찰하도록 유도한다.

달마의 사상도, 그를 가장 잘 계승한 혜능도 결국 이야기하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혜능은 진여본성(眞如本性)을 강조한다. 본래 마음이란 진여본성이고, 진여본성은 불성(佛性)이다. 이 진여본성인 불성을 보면 그 자리가 그대로 해탈이다. 이는 혜능 대사의 불성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 말로, '본성을 보고 난 후에 다른 수행을 하여 열반이나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본 그 자체가 성불이고 해탈이며 열반'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선종의 교리적 해석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자의 스승인 광덕 스님의 가르침과 달마, 혜능의 사상을 통섭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수행의 길을 응집하여 결국, 출가 당시의 물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불교의 답이다. 무엇에도 얽힘 없는 자유자재한 삶, 그러기 위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안목을 키우는 지혜, 그것이다.

혜담 스님은 서문을 통해 스승인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틀림없이 무상, 고, 공, 무아, 혹은 부정, 무, 무아이긴 하지만 이것은 현상에 대해서 범부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범부들의 그릇된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깨달은 궁극적 진실을 말한 게 아니다. 부정(不淨)에 대한 가르침, 고(苦)의 가르침, 무상(無常)의 가르침은 불법이며 부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문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법신(法身)이다. 번뇌가 다하고 번뇌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번뇌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라고.

▲저자 **혜담 스님**은?

1949년 경남 울산서 태어난 혜담 스님은 부산 금정산 범어사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해군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고,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대품반야경에 있어서의 반야바라밀 연구〉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 재심호계위원, 불교신문 논설위원, 불광사 주지를 역임한 그는 현재 경기도 검단산 각화사 주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한 건축학도 호기심, 의상을 만나다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

김승제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2만원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 1983년 동경유학시절 이미 정해놓은 책 제목이다. 의상대사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대사에 대한 초기 역사적 자료는 매우 적었다. 더욱이 의상의 활동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저마다 달라 더욱 혼란스러웠다. 저자가 매우 궁금해한 부분 즉 바로 의상이 입당해 귀국하기까지 당나라에서의 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저술은 더욱 찾을 수가 없었다. 의상은 구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당에 성공해 장안 종남산에 자리 잡은 지상사에 가서 화엄 2대 교주인 지엄을 만났다. 저자는 의상이 어떠한 행로를 통해 당으로 이동했고, 유학생활은 어떠했는지, 또한 귀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을 계속 품고 있었다.

저자는 1988년부터 광운대와 원광대 건축학과서 한국건축사를 강의했다. 이 책의 일부는 그의 강의 내용이다. 2007년부터는 청도 이공대학 국제학부 건축학과 강의를 맡아 연간 4~5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인연을 이어왔다. 때마침 저자의 연구실에 중국 유학생이 입학 하면서 중국에서의 의상대사 행적에 대한 궁금증의 해답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의상대사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옛 자료를 통해 신라와 중국에서의 행적을 추이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기존의 등주(登州) 도착설이 아닌 양주(揚州) 도착설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의상대사와의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당나라 당시 양주 대명사(大明寺)의 큰 스님인 감진(鑒眞, 688-763)이 일본 승려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75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천태종의 시조가 된다는 기록이 있다. 그후 838년 엔닌(圓仁, 794-864)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847년에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당나라에서 겪은 내용을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술했다.

고대에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험난한 길이었음에 틀림 없다. 엔닌의 저술을 살피니 배를 타고 일본을 출발해 황해를 건너 양주에 도착한 후 다시 장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안서 귀국까지 다사다난한 당시의 상황 설명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궁금증이 한번에 걷히는 듯했다. 저자는 곧 엔닌이 다녀온 그 길이 바로 의상대사가 이미 다녀온 길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승려들의 이동에 대한 규제 제한 등이 엄격히 이루어진 점과 당시 장안으로 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의상의 행적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나 기존의 애매모호하고 서로 다른 내용의 입당 과정을 정리하면서 의상대사의 입당 후 신라로 귀국하기까지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었다.



교토 서북쪽 도가노오산에 있는 고산사 금당

당나라 승려 이동에 대한 규제 엄격

의상, 입당후 신라 귀국까지 행적 추정

저자는 〈의상전교〉 〈부석본비〉 〈송고승전〉 〈백화도량발원문약해〉 〈해동고승전〉 〈입당구법순례행기〉(엔닌)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 정리했다. 그리고 2016년 의상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현지답사서 얻은 확신으로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제안을 한다.

첫째, 의상은 남양반도서 배편으로 황해를 지나 항해해 양주(揚州)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의상은 1차 입당시기까지 아직 정식 수계를 받지 않은 사도승(私度僧) 단계였을 것이다. 의상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 그에 앞서 저자에게 불교의 이해는 필수였다. 저자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시작해 기본 불교교리를 공부했다. 이어 동북아시아불교사를 탐구했고, 영주 부석사와 석굴암, 낙산사 홍련암 등 불교건축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나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신국판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신국판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신국판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순례’가 된 사진, 108산사


낙산사 공중사리탑


봉정암 진신사리탑


증심사 대웅전


불국사의 가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장 최우성 사진집 발간
건축가·사진가·불자의 눈으로 본 산사
간월암, 낙산사 등 27곳 사진 300여 장 수록
총 4권 시리즈 출간 예정 중 그 첫번째
사라진 옛 불사 그리움으로 찾아나선 ‘여정’

한국 고찰의 아름다움을 40여 년간 사진으로 기록해 온 한국불교사진협회 최우성(효천 · 60)회장이 사진집 〈사진으로 본 한국의 108산사, 1권〉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간월암, 낙산사 등 108산사 중 27곳의 사진 300여 장과 각 사찰의 역사가 수록된 것으로, 4권 예정 시리즈 중 ‘1권’이다.

최 작가는 전통건축을 전공한 인연으로 한국의 사찰 건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난 40여 년 간 전국의 고찰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그가 오랜 동안 한국의 사찰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건축가로서, 사진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자체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여 이룩했던 불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여러 차례 소실되는 등 그 원형을 대부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으로 인해 도심지의 절들은 대부분 폐사되고, 산중의 절들도 그 명맥을 이어가기 힘겨웠습니다. 이제 시절이 바뀌어 배불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역사속의 찬란했던 불국토의 원형과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건축 또한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록 옛 영화에는 견줄 바 못되지만, 현재의 모습이나마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시대 불교문화의 일부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집은 만공선사의 발자국을 품은 간월암으로 시작된다. 관촉사, 낙산사로 이어져 마지막 가평 현등사까지, 사진들은 건축가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것은 건축가의 눈으로, 사진가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사진가의 눈으로, 그리고 불자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불자의 눈으로 기록한 사진들이다. 오로지 ‘건축의 미학’만으로 바라보기에 충분한 전각의 사진들과 노을과 단풍, 일출 속에 머문 가람과 석탑의 사진들, 그리고 부처님 얼굴에 쌓이는 햇살과 부도에 흐르는 선지까지. 각각의 사진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찰의 내력과 더불어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면 책은 한 편의 ‘순례’가 된다.

이번 책의 사진들은 한국불교사진협회 홈페이지와 신한국문화신문의 사진나들이 ‘사찰탐방’에 연재됐던 것으로,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시절의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사찰의 모습과 그 시절 우리 불교가 품었던 법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사진집의 볼륨에서 작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작가는 한 권으로 끝낼 수가 없어 4권에 108산사를 담기로 했고, 우선 27곳의 사찰을 묶어 1권을 낸 것이다.

“108이라는 숫자는 중생계의 번뇌를 표현한 숫자로 그동안 답사한 절 가운데 역사의 향기가 불씬 배어있는 108곳의 절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책으로 엮으려 하니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절이 이외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절을 사진 몇 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108 산사를 골라 각 절의 사진 10여 장과 각 절의 내력을 적으려고 하니 1권의 책으로는 묶어내기에 너무나도 큰 분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4권으로 회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한국의 108산사〉 2권이 기다려진다.

최우성 작가는?

한겨레건축사무소 대표로 한국 전통건축에 대한 일을 해오면서 40여 년 동안 전국의 사찰을 기록해 왔다.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으로 문화재실측설계, 불교사찰설계, 전통한옥신축설계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포토클럽 회원전 3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8회와 개인전(2016년, 불국토를 꿈꾸며) 1회를 가졌다. 현재, 문화재 사진작가로 전국의 문화재현장을 찾아 사진으로 담는 작업과 불교 사진작가로 전국의 사찰 문화재 사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신한국문화신문 사진부장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재, 명승지, 문화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음악원 ‘불교합창아카데미’ 1기 모집

2월 5일(월)~23일(금) 60명 모집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불교합창단의 정체성 확립과 보다 전문적인 합창교육을 목표로 ‘불교합창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불교합창에 관심 있는 스님과 불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시, 수료증이 수여되고 불교방송 및 불교행사에 출연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월 5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이며 모집인원은 60 명이다.

박범훈 원장을 필두로 김성녀(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이 찬불가 교육을 담당한다. 율동에 필요한 무용은 국수호(디딤무용단 이사장)명인이 지도하고 전통불교음악의 핵심적인 창법을 이상균 교수(세한대학교 국악과)가 지도한다. 민요의 실체는 유지숙(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박애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최수정(중요무형문화제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등의 명창이 지도하고, 신작 찬불가는 박범훈 원장과 김회경(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등, 찬불가를 작곡한 작곡자가 직접 지도한다. 범패나 화청 등의 전통찬불가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은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과 화청은 선정 스님을 모셔 별도로 지도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불교음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2-3218-4866 박재완 기자

만장(挽章)이 예술로

한국문화연구원 초대전 ‘아름다운 이별’展
한국문화연수원 교육동 갤러리서 4월 5일까지

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만장을 전시한다.


홍법선사 열반송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은 도곡서회와 함께 4월 5일까지 교육동 갤러리에서 만장을 전시하는 ‘아름다운 이별’전을 개최한다. 망자의 지인들이 망자를 기리며 적었던 만장을 주제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만(挽), 만(輓), 만사(輓詞) 라고도 불리는 만장은 망자(亡子)의 명복을 기리는 글을 적은 큰 천이나 종이를 기(旗)처럼 만든 것으로, 망자의 지인들이 만장을 들고 상여의 뒤를 따른다. 만장에는 죽은 이의 학덕, 선행, 문장, 함께했던 소회 등을 오언절구, 칠언율시 형태로 적고 있다.

본 전시회에서는 만장과 아울러 만장의 형식을 이용한 서예작품도 전시된다. 충신과 애국지사의 절명시, 나의 죽음을 가정하며 쓴 자만시, 문인의 절필시, 스님의 열반송 등이 전시 된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한문 만장뿐 아니라 한글 만장도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새해에 만나는 천진불 동자승 사진전



동자스님 수행 달력 사진전이 열린다.

오랜 동안 동자승을 찍어온 현중 스님이 2018년 1월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개인전으로 동자승 사진으로 만든 신춘 달력을 전시한다. 전시에서는 동자승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선묵화 그리고 현중 스님이 시인으로서 틈틈이 적어놓았던 시가 어우러진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4시다.

문의-02-720-1161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日 유출 불감, 고려 1100주년 맞아 '환지본처'

국립중앙박물관회 YFM, 1월 9일 국박에 기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강점기 이후 유출됐던 고려시대 불감(佛龕)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월 9일 (사)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이 기증한 '고려 불감'을 공개했다.

이 불감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 병원장이자 고미술 수장가였던 이치다 지로(市田次郞)가 소장한 것으로 광복 이후 그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유출했으며, 30년 전 일본 동경 고미술상이 구입했다.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리건판 사진으로만 전해져 왔다. 이후 YFB가 일본 동경 고미술상에서 확인한 후 모금을 통해 구입했으며,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고려 불감'은 휴대용 불감으로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 예불을 봉행할 수 있도록 한 축소된 불전(佛殿)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집중적으로 제작됐으나 현재 전해지는 불감은 15여 점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에 기증된 불감은 전각형이 아닌 상자형으로 그 사례가 극히 드물다.

14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고려 불감'은 높이 13.5cm의 '동제 불감'과 높이 8cm, 너비 5.2cm의 '은제 도금 관음보살상'으로 구성됐다.

'고려 불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불감 내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타출 기법으로 제작한 부조 장식이다. 불감 내부에는 석가여래설법도가 부조 형태가 조성돼 있는데 청중으로는 좌우 협시보살과 10대 제자, 팔부중(八部衆)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양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고려시대 불감 중 유일하게 팔부중이 등장하는 여래설법도"라면서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의 시원으로 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인 면에서는 익산 심곡사 7층석탑 출토 불감과 유사하다"면서



(사)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이 1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14세기 제작 추정 고려 불감. 이치다 지로가 광복 후 일본으로 유출한 것을 YFM가 구입 · 환수했다.

고려 불감, 14세기 후반 제작
팔부중 등장 설법도 '유일'
조선 유행한 영산회상도 始原
상자형은 사례 적어 가치 높아

이치다 지로, 광복 후 日 유출
고미술상 설득 끝에 구입 · 기증
올해末 '대고려展'서 일반 공개



◀고려 불감에 부속된 '은제 도금 관음보살상'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금속제 불감의 전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고려 말 불교미술 양상, 금속공예 · 건축 양식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감과 함께 전래된 관음보살상은 이 시기에 제작된 원 · 명대 불상 영향을 받은 소형 금동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요소가 많다. 불감 내부의 고정 장치와 보살상의 크기를 보았을 때, 원래는 2구의 불상이 불감 안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된 '고려 불감'을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열리는 '대고려' 특별전시회에 전시하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도 진행할 계획이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불감은 그 시대의 회화, 불상, 건축이 집약된 매우 희귀한 불교 문화재"라면서 "환수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좋은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고려 불감을 포함해 10건의 유물을 기증했으며, 이번에 불감을 기증한 YFM은 젊은 경영인들이 2008년 결성한 문화 후원 친목 모임이다.

금강대 불교문화硏 산스크리트어 강좌

1월 29일~ 2월 9일까지

불교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에서는 제10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인 '스바가땀! 산스크리트'를 개설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금강대 본관 종합강의동에서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불교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기타 인도문화와 불교, 산스크리트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 강좌에서는 산스크리트 초보자를 위한 문법반과, 초기대승불교 경전을 실제로 독해하는 강독반이 운영되며, 이영진(산스크리트 사본전공)과 하영수(법화경 전공)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월 23일까지며, 기숙사 문제로 선착순 접수 · 마감된다. 수강료는 강좌당 10만원, 두 강좌동시 수강시 15만원.

문의 (041) 731-3628

신성민 기자

조선왕실 원당 청룡사의 모든 것 담다

國博, '안성 청룡사' 종합조사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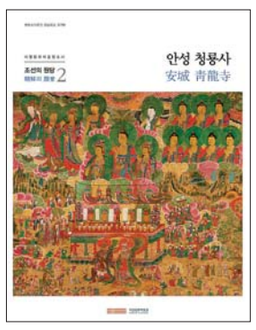
조선시대 왕실의 원당(願堂)이었던 안성 청룡사의 문화재 등을 연구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16~17년 실시한 사찰문화재조사사업의 결과가 담긴 〈조선의 원당2- 안성 청룡사〉를 발간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조선의 원당2- 안성 청룡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미술 연구 조사보고 제7집으로, '조선의 원당'을 연구 대상으로 한 2번째 보고서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청룡사는 조선 인조의 아들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의 원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찰은 고려 말에는 왕의 초상을 봉안했으며, 조선 전기에는 역대 왕실의 내원당(內願堂)으로 기능했다.

원당은 죽은 사람의 그림, 상(像), 위패를 모시고 명복을 빌며 기도하는 자의 다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법당을 의미했



으나,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안녕과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찰으로 자리잡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청룡사가 소장한 불교조각, 불교회화, 동종(銅鍾), 부도 등의 문화재를 실측하고 촬영했으며, 불화의 안료 분석, 복장(腹藏) 발원문 직물의 현미경 촬영 등의 과학적 조사를 함께 수행했다. 이외에도 청룡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주요 기록을 모아 번역했다.

2년에 걸친 조사 결과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야별 전공자 7명이 작성한 7편의 논고 안에 자세히 정리됐다.

논고에는 '소조석가모니삼존상(보물 제1789호)', '감로도(보물 제1302호)', '동종(보물 제1104호)', '소조석가모니불상' 안에서 발견된 발원문 등을 중요하게 다뤘다. 또한, 이외에도 사찰의 문화재를 전수 조사하고 상세한 사진과 내용을 풍부히 담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찰이지만 이 같은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다량의 문화유산을 갖춘 것은 왕실의 원당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요인이었다"면서 "현전하는 문화재와 문서 기록은 사찰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안성과 직산 일대의 백성들이 정성어린 시주 공양으로 유지 · 존속됐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한 〈조선의 원당2- 안성 청룡사〉는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불교는 어떻게 정착됐나

충북대 철학과, 1월 8일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철학과 불교' 주제

동아시아 전통 철학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충북대(총장 윤여표) 철학과는 1월 8일 인문대학 325호에서 '동아시아 전통철학과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18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충북대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단과 정세근 철학과 교수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 일본 · 미국 4개국 대학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각국 불교와 전통철학의 접합과 정착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학자로는 정세근 교수가 '한국불교의 특징-운주사의 경우', 이병욱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의 통불교'에 관해 발표했다.

중국 측 학자로는 두바오뢰이 상하이 교통대 교수가 '중국의 대승불교사상과 유가도가철학'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정상봉 건국대 교수가 통역을 담당했다.



충북대 철학과는 1월 8일 인문대학 325호에서 '동아시아 전통철학과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본 측 학자로는 사토고에츠 츠바쿠대 교수가 '일본에서의 불교와 신도의 습합'에 대해 발표했고, 같은 대학의 엄석인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 미국 측 학자로는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가 '서구에서의 불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정세근 교수는 "이번 학회를 계기로 한 · 중 · 미 · 일 4개국의 불교가 자국화되어가는 과정과 그 특색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선학회 · 연세대 철학硏 벽암록 시민 무료 강좌

13일부터 매주 土 5주간

신규탁 연세대 교수 강의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한국선학회는 공동으로 1월 13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벽암록〉 맛보기 시민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 장소는 연세대 문과대학 외솔관 526호 멀티미디어강의실이며, 강사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강의 교재는 장경각에서 간행한 선림고경총서 시리즈 〈벽암록〉(상권)이다. 〈벽암록〉은 중국 당나라 이후 불교 선승들이 전개한 대표적인 선문답을 가려 뽑아 설명한 책으로 설두중현 선사가 펴낸 〈송고백칙〉에 원오극근 선사가 내린 해석을 첨가한 것이다.

선과 문학이 어우러진 명저로 중국 지성계를 흔들었다. 한국에는 고려 말에 전래됐고, 조선 초에 청동 활자로 이 책을 인쇄 · 보급한 바도 있다.

한편, 신 교수는 방학을 이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좌를 개설해 왔으며, 최근에는 '화엄 현담 의리분제', '고존숙어록'(초록) 등을 강의했다. 문의 (010)5510-2537(여여행)

신성민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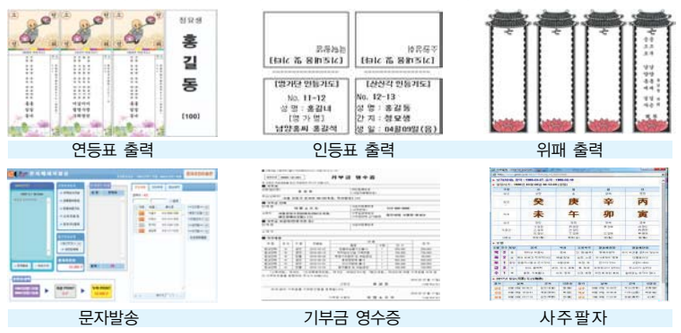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박재완의 PhotoEssay



포행

마른 초목은 적적하고
어느 새, 하루해는 또 저문다

어쩔 수 없는 시간과
어쩔 수 없는 길에서
초목은 야위었고 해는 저물었다

이 저녁에
이 한 발짝도 어쩔 수 없는 것
산 아래 '너' 도
어쩔 수 없는 것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성낙윤의 불교매듭

② 도래매듭

매듭의 기초 '도래매듭'



매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도래매듭'

한국매듭의 특징은 두 가닥의 실로 엮고 조이는 과정에서 매듭의 형태가 이루어지며, 엮고 난 후 반드시 앞뒤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매듭의 중앙에 우물 '정(井)' 자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듭은 주체를 살리기 위한 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 횡적이기 보다는 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한국의 매듭은 30여 가지가 넘는다. 그 중 이번에 소개할 도래매듭은 매듭의 시작과 끝을 맺는 매듭으로 가장 기초적이며 단순하고 기본적인 매듭이다.

매듭을 엮으려면 기본적인 실이 있어야 한다. 실의 굵기는 매듭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초보 단계에서는 노리개 실이면 된다. 실과 도구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실의 선택

노리개나 장신구 - 노리개 실, 또는 중세사라 한다.
벽걸이(유소) - 족자나 벽화 좌우에 장식용으로 쓰임. 중사.
발걸이 - 중사
괘불 - 대사
선추(부채끝) - 세사
매듭을 엮으려면 매듭을 엮는 데 필요한 도구와 소재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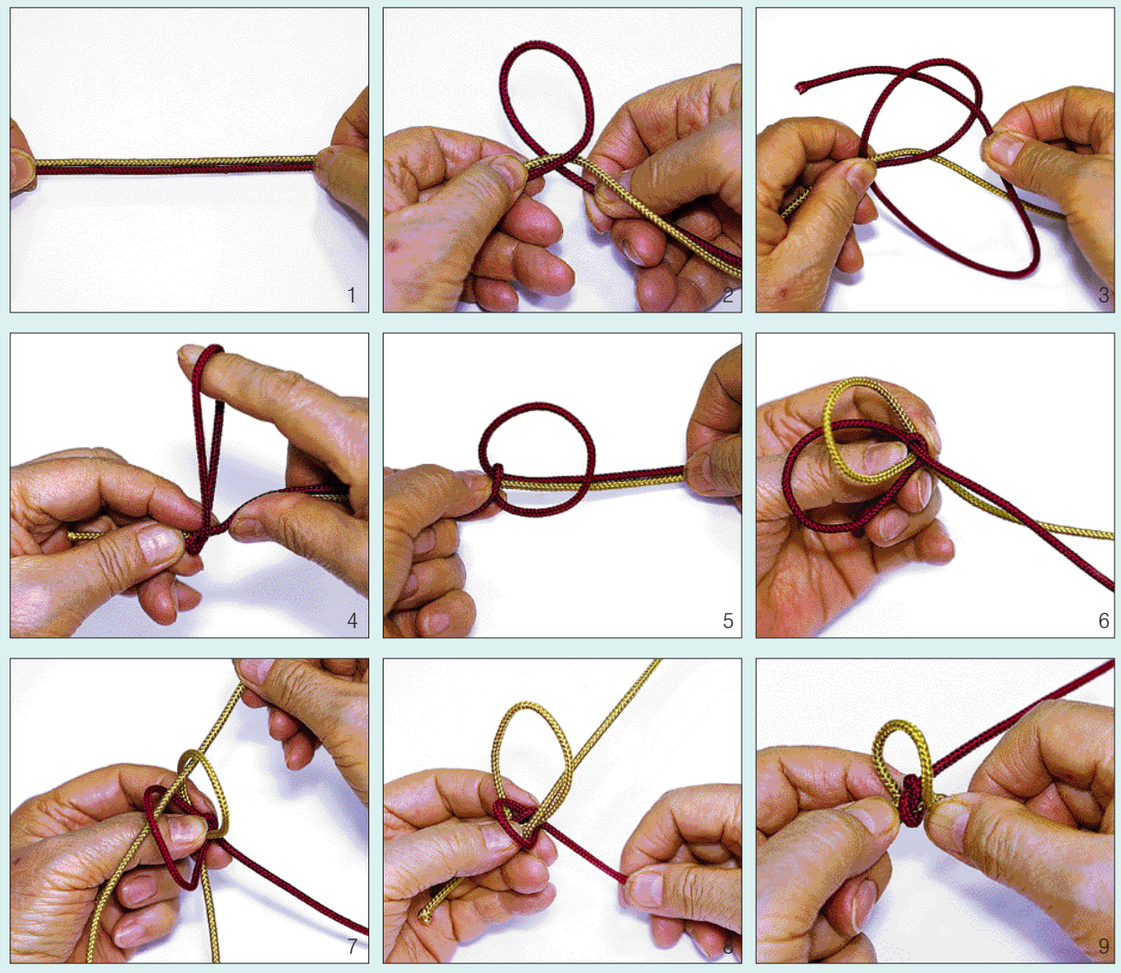
＊준비물

필통, 주머니 - 실과 그에 필요한 도구를 담아 보관하기 쉽도록 한다.
송곳 -매듭용 송곳이 따로 있다. 일반 송곳이 아님.
가위, 줄자, 코바늘 등

도래매듭 만들기

색이 다른 2가닥의 실을 70cm 씩 준비한다. 한국 매듭은 언제나 2가닥의 색이 같은 실로 매듭을 엮고 조이는 과정으로 중앙의 앞뒤가 똑같이 우물 정자로 된다. 실은 노리개 실로 하며 강의 중에는 중사(편의상 굵은 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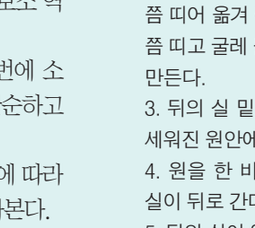
1.~2. 왼손으로 2가닥을 잡고 6cm 쯤 띠어 움겨 쥐고 앞의 실을 10cm 쯤 띠고 굴레 돌리듯이 세워서 원을 만든다.
3. 뒤의 실 밑으로 빼서 그 실 끝을 세워진 원안에서 밖으로 뺀다.
4. 원을 한 바퀴 돌리면 앞에 있던 실이 뒤로 간다.
5. 뒤의 실이 앞으로 나온다.
6. 이 실을 앞서 했던 것처럼 원을 세워서 만들고 먼저 원 앞에 놓으면 굴렁쇠 같은 원이 2개가 생기는데, 그 실 끝을 먼저 실 밑으로 빼면서
7. 2개의 원안에서 밖으로 뺀다음
8. 먼저의 원을 잡아 빼서 원의 크기를 줄이고
9. 나머지 원도 오른손 손톱 끝으로 밀면서, 잡아 빼면 원이 줄어들고 'X' 자 형태의 매듭이 생긴다. 앞뒤가 똑같이 나온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 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새해, 새날

무술년 戊戌年(불기 2562년)

불성은 빛이다. 밝고 밝은 빛이다.
아름답고 아름다워라. 찬란하고 찬란하구나.

'마음의 향기' 中에서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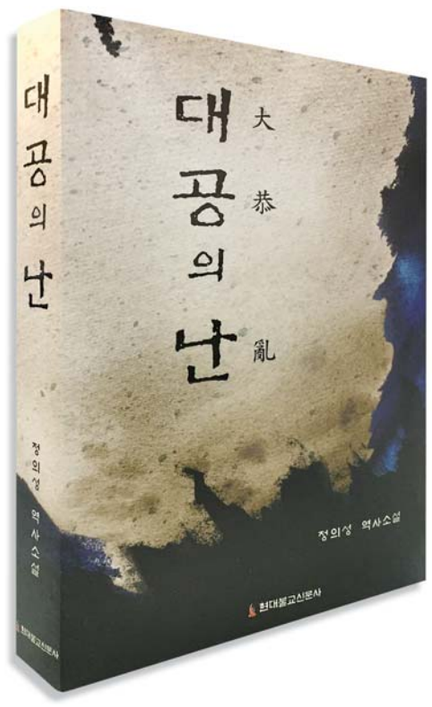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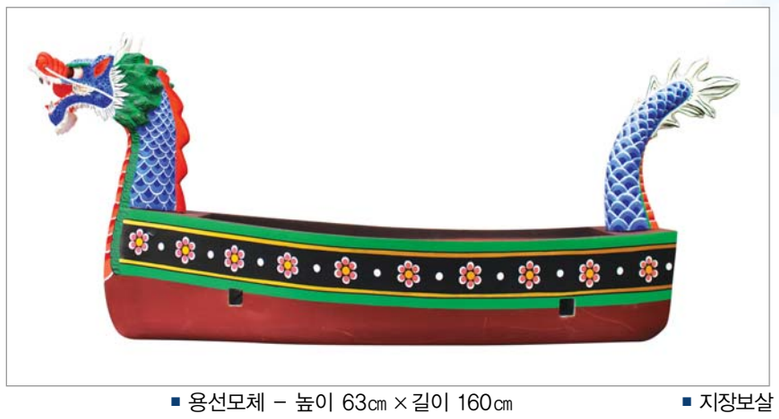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